

花遷堂 朴春茂의 壬辰倭亂 義兵活動*

李 錫 麟**

全 浩 秀***

-
- I. 머 리 말
 - II. 關聯資料의 檢討 및 事實의 再構成
 - III. 義兵活動의 社會經濟的 基盤 및 作戰構想
 - IV. 義兵活動의 展開
 - 1. 壬亂 初期 淸州地域의 戰況과 淸州城 收復戰에서의 役割
 - 2. 鎭川勝捷 및 이후의 行蹟
 - V. 맺 음 말
-

I. 머리말

朝鮮王朝 최대의 대외적 시련이었던 壬辰倭亂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인의 하나는 전국적인 義兵活動에 힘입은 것이었음은 잘 아는 바와 같다. 당시 전국적인 의병의 봉기야말로 제대로 교전 한 번 벌이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한 지, 채 한 달도 못되어首都까지 내주고 말았던 官軍의 일방적 패배를 반전시켜 승리의 토대를 닦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일찍부터 경상도 의병이 활약하여 湖南地方을 보전함으로써 병참조달 및 수군활동의 背後基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진왜란 연구에서 의병에 대한 관심이 활발히 전개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지원비로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충북대학교 강사

그런데 지금까지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는 몇몇 주요 義兵將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그 軍事的 役割과 成果보다는 國難克服의 精神史的 意味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른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국가 또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個人的 安危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희생하는 滅私奉公의 英雄意識을 추출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壬辰戰亂의 전반적 측면에서 군사적 의미와 악이라든가 義兵陣營 자체의 작전·운영문제 등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後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임진왜란을 끝내는 승리한 전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¹⁾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각지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의 위치와 의미를 壬辰戰亂 전반의 추이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임진전란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이 군사적 측면에서 계기적이고도 세분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義兵陣이 倡義起兵하여 戰鬪를 수행하기까지 전반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의병진의 경우 그 휘하의 群小義兵將들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독자적 활동을 보였던 의병장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²⁾

본고는 後者의 측면에서 임진왜란 당시 忠淸道 淸州地域에서 起兵하였던³⁾ 의병장들의 한 사람인 花遷堂 朴春茂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박춘무의 창의기병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대표적 기록물인 『懲毖錄』·『瑣尾錄』·『亂中雜錄』 등에 그 사실이

1) 임진왜란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

① 許善道, 1984. 「壬辰倭亂論」 『第14回 東洋學學術會議講演鈔』(檀國大 東洋學研究所).

② 許善道, 1985. 「壬辰倭亂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正音文化社).

③ 許善道, 1987. 「壬亂劈頭 東萊(釜山)에서의 여러 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上)」 『韓國學論叢』(國民大 韓國學研究所).

④ 崔永禧, 1991.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館論叢』30(國史編纂委員會).

⑤ 許善道, 1992. 「壬辰倭亂史論」 『韓國史論』22(國史編纂委員會).

2) 崔永禧, 1992.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問題點」 『韓國史論』22(國史編纂委員會), 26에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基礎作業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임진왜란 때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① 崔槿默, 1970. 「壬亂 때의 湖西義兵에 대하여」 『論文集』9(충남대학교).

② 金鎭鳳, 1982. 「壬辰亂中 湖西地方의 義兵活動과 地方士民의 動態에 관한 研究」 『史學研究』34(韓國史學會).

③ 李錫麟, 1993. 『壬亂義兵將 趙憲研究』(新丘文化社).

소개되었다.4) 특히, 『瓊尾錄』 및 『亂中雜錄』의 全羅道 義兵從事官 宋齊民(1549~1602)⁵⁾ 檄文⁶⁾에서는 그가 錦山戰鬪의 殉節名賢인 重峰 趙憲(1544~1592)과 더불어 각각 忠淸義兵의 左·右大將으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주목할만한 사실⁷⁾을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斷片的인 紹介에 그친 것이어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병장에 대한 개별사례연구가 그러하듯이 일차적으로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고민거리이다. 박춘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집으로 『花遷堂集』⁸⁾이 편찬되기는 하였지만, 300여 년이나 지난 후대에 관련자료를 수집한 것이어서 기

- 4) ① 『懲愆錄』 권1, “時各道起義兵討賊者甚衆…其在忠淸道者 僧人靈圭…士人朴春茂…”
 ② 『亂中雜錄』第1(『大東野乘』 권26), 壬辰年 7月, “忠淸道 前察訪朴春茂 舉義兵討賊.”
 한편, 박춘무는 宣武勳과 관련해서는 原從2等功臣에 책록되었다. 그런데 「宣武原從功臣錄券」(서울대 奎章閣 도서번호 : 古4251-13)에서 朴春茂라는 이름의 녹훈자는 僉知職과 部將職을 가진 2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화천당 박춘무는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주)¹¹, 참조)을 지냈다고 하므로, 첨지직의 녹훈자로 판단된다.
- 5) 호는 海狂, 자는 以仁 또는 士役, 본관은 洪州이며, 初名은 濟民이다. 全羅道 潭陽에서 태어났으며, 光州·務安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羅州에서 창의하여 金千鎰의 휘하에서 忠淸義兵으로 활약하였다. 土亭 李之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30세이던 1578년 스승을 좇아 湖西로 가서 趙憲·박춘무와 교제하면서 歲寒契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문집으로 『海狂集』(奎章閣 도서번호 : 奎6668 ; 2권1책, 1783년, 5대손 宋益中이 편집·간행)이 전해온다. 문집의 서문은 金鍾秀가 썼다. 주요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上卷에서는 「召募湖南義兵文」 등 1차자료를 실고 있으며, 下卷에서는 遺事·墓地銘을 비롯하여 尤庵 宋時烈이 쓴 墓表, 南溪 朴世采가 쓴 傳記 등 후대에 서술된 관련자료를 실었다. 그는 임진왜란 때 首倡하였던 趙憲·김침일·高敬命 등 兩湖地域의 주요 의병장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인물 중의 하나이다.
- 6) 『瓊尾錄』 및 『亂中雜錄』에 실려 있는 송제민의 격문은 『瓊尾錄』의 것이 보다 온전한데, 이것도 그 全文이 완전히 실려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필자는 본고의 작성과정에서 송제민의 문집인 『해광집』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그 전문은 물론 명칭이 「召募湖南義兵文」임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後述하는 과정에서는 이 「召募湖南義兵文」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자료는 ‘趙浚來, 1983, 『壬亂義兵將 金千鎰研究』, p.48, 學文社’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저에서는 『瓊尾錄』 등과 연관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해제 없이 단순히 한 차례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해광집』의 자료적 가치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듯하다.
- 7) 『瓊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義兵從事官宋齊民通文」; 『亂中雜錄』 제1, 임진년 7월 「宋齊民檄文」, “故來與忠淸士友 號召義徒…從衆望共推 前都事趙憲 爲左義大將 以禦黃永以下之賊 前察訪朴春茂 爲右義大將 以防錦江以上之賊.”
- 8) 3권 1책의 목할자본으로 1895년 11대손 朴文圭가 편집·간행하였다. 300여 년이나 지난 이후에 편찬하였기 때문에, 박춘무의 遺稿라고 할만한 1차자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序文은

본적인 生沒年代조차 밝히지 못하였다.⁹⁾ 따라서 그 문집을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우선, 후대의 傳承過程에서 事實의 潤色·介入與否에 대해 면밀한 자료비판이 앞서야 할 것 같다.¹⁰⁾ 실제로 그 문집의 기록대로라면, 지금까지의 일반적 이해와 관

淵齋 宋秉璿(1836~1905)이 썼으며, 권말에 旁9代孫 朴夏東의 跋文이 있다. 참고로 目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권1 -- 檄文, 再檄文, 遺子孫文(學義時遺子孫文), 書 贈李御史
- 권2 -- 行狀, 墓表, 墓表追記(花遷堂朴公墓表追記), 諡狀, 禮曹啓目, 延諡節目, 三代倡義錄序
- 권3(雜著) -- 東史文獻錄(東史文獻錄 土亭李先生門人), 壬辰日記, 學義時事, 壬辰錄, 春坡堂錄(春坡堂錄卷之八), 懲愆錄(西崖懲愆錄), 抗義編(重峰抗義編), 祠宇(祠宇 懷仁後栗祀), 追錄 疏本(追錄 上言草)

9) 이에 따라 그 의병활동 사실에 대한 古邑志類 및 現行 市郡誌 등에서의 기록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89년 3월 26일 淸州市 中央公園에서 개최된 그 戰蹟碑 제막식 당시에 배포된 자료인 「愍襄公花遷堂朴先生戰場紀蹟碑建賢錄」에 따르면, 그의 의병활동 사적이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1년 趙健相이 편찬한 『淸州誌』의 간행 이후라고 소개하고 있다(이 자료의 11, 26, 40 참조). 물론 古邑志類에 박춘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매우 늦어서 1933년 李秉延이 편찬한 『朝鮮寶輿勝覽』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여기에서는 ‘忠淸北道 淸州郡 原從勳條’에서 “朴春茂字至元 號花遷堂 順天人 文愍公仲林后 土亭門人 官富平府使 壬辰與趙重峯倡義 以李時發韓赫爲從事官 累立戰功 扈駕龍灣 綠宣武勳 贈左參贊 諡愍襄 屏溪尹鳳九撰墓表 吏判南秉哲撰諡狀 享後栗祠 有遺集”이라고 하여, 그 문집을 열람하였던 듯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환여승람』이 일제식민치하의 암울한 시기에 이루어진 개인적 저작이었던 관계로 일반에게 영향은 크지 못하였던 듯하다. 한편 『花遷堂集』권2에는 1764년(英祖 40) 凝川 朴聖源이 쓴 「三代倡義錄序」가 실려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박춘무를 비롯하여 그 次男 朴東命 및 손자 朴弘遠 3대의 창지사실에 대해 별도의 책자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문집 편찬 이전에 逸失된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무 후손들의 사적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함께 從軍하였던 박동명, 李适의 亂 및 丙子胡亂 때에도 창의한 부친 박동명을 좇아 군사를 지휘한 박홍원, 玄孫(5대손)으로 李麟佐의 亂 때 창의했던 朴之堧의 활동을 기록한 문집으로 『梅隱堂實記』가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역시 『花遷堂集』을 간행할 때 함께 판각하였는데, 3대의 사적임을 표시하기 위해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梅隱堂實記」에 「持平公實錄」을 并附하는 형식을 취해 하나의 목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분리하여 2권1책의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박홍원의 사적은 「매은당실기」의 끝부분에 첨부하는 형식(附下)을 통해 별도의 사적임을 드러내기 위한 배려를 하였다. 한편 이 자료는 『順天朴氏愍襄公派譜』 乾(1991, 順天朴氏愍襄公派譜編纂委員會)을 통해 비로소 공개된 듯한데, 참고로 그 목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梅隱堂實記(附錄, 권1) 1) 行狀, 旌閭重修銘, 諡狀, 丙子錄, 遺書(遺子孫文), 事實
- 2) 宣務郎行狀(附下) -- 行狀, 墓表, 遺事
- 持平公實錄(并附, 권1) -- 行狀, 墓表, 檄若文後序(奉讀 花遷先祖檄若文後序), 頒教文, 揚武原從錄券(揚武原從功臣錄券), 追錄 上言草

련하여 몇 가지 상충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花遷堂集』을 중심으로 당시 官撰·私撰의 관련문헌과 비교·검토하여 事實關係를 비판·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의 家系 및 修學過程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병활동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해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淸州城 收復過程에서의 역할 및 鎭川戰鬪의 勝捷過程과 이후의 行蹟에 대해 나뉠대로 복원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특히, 청주성 수복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花遷堂集』의 기록이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情況根據를 통해 그 事實性을 推論해 보게 될 것이다.

II. 關聯資料의 檢討 및 事實의 再構成

朴春茂의 의병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의 대표적인 문헌에서 趙憲과 더불어 湖西右義大將으로 추대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던 사실에서, 그 義兵陣의 규모라든가 인물로서 지역적·학문적 명망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倡義舉兵에 대한 文獻의 綜合整理는 비교적 최근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사실여부를 놓고 논란조차 없지 않았던 듯하다. 따라서 그 의병활동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집의 주요 기록에 대해 관련자료와 충분히 비교·검토를 선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춘무의 『花遷堂集』에서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로는 권3의 「舉義時事」를 들 수 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자료소개의 측면을 포함

- 10) 『花遷堂集』의 序文을 쓴 송병선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公之遺文 羅於鬱攸 存者無哉 雲仍僅得檄文及公私文蹟 編爲一冊 將謀入梓以壽之 嗚呼 現今 誠淫之辭 塞路滔天 人不復知有義理 則斯不足爲公之重 而宜爲世道之所重也” 즉 본래는 박춘무의 遺文이 많았으나,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는 대부분 逸失되어 후손들이 겨우 檄文 정도를 얻어서 책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의문시하여 논란도 없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박춘무의 起義事實을 처음 世間에 드러낸 인물도 다름아닌 송병선의 선조인 尤庵 宋時烈(1607~1689)이었다는 점이다. 즉 『宋子大全』권164, 「刑曹判書李公神道碑銘」에서 송시열은 碧梧 李時發이 박춘무의 회하에서 從事官으로 활약하였음을 밝히는 형식으로 박춘무의 舉義事實을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송병선으로서는 박춘무의 倡義事實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서문은 『淵齋先生文集』권33, 「花川堂朴公春茂遺集序」와는 字句가 조금 다른데, 본래 草案本을 후손들의 요청에 따라 다소 상세하게 수정한 것으로 『花遷堂集』에 실은 듯하다.

하여 그 全文을 번역하여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淸州지역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종사관 李時發·韓赫 등과 더불어 죽음을 맹세하고 적을 무찔러서 淸州를 평정하였다. 군사를 鎭川으로 옮겨 열흘동안이나 적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지원병은 오지 않고 의병도 힘이 고갈되었다. 당시 관찰사 尹先覺은 나라를 저버리고 임금은 잊은 채 공만 탐하고 패배를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關을 내려 지원병(보내는 것)을 막았다. 또 의병을 亂兵으로 취급하여 그 家率들을 체포·구금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을 토벌할 수도 없었다. 즉, 여러 번 주변 郡縣에 전령을 보내 지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주변 군현에서는 끝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돕지 말라는 것’이 순찰사의 명령이므로 한 사람도 지원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壬辰年 4월에 격문을 돌렸으며, 7월 4일에 군사를 일으켰다. 수천명의 의병을 모아서 淸州로 直向하였다. 이때 조현도 沃川지역에서 起兵하여 청주로 진군하여 더불어 힘을 합쳤다. 公(*박춘무)은 청주성의 南門을 공격하고, 조현은 西門을 공격하여 청주를 수복하였다. 군사를 나누어 진군하기를 조현은 錦山으로 나아갔으며, 公은 鎭川으로 향했다. 왜적을 포위하고 열흘이 지나도 지원병이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포위를 풀려고 하였는데, 한 무리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식을 가지고 바삐 달려와 위로하며 말하기를, 불쌍한 우리 城民들이 지금까지 도륙당할 위기를 넘긴 것은 모두 장군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포위를 푼다면 왜적들은 틀림없이 제멋대로 살륙을 일삼을 것인데, 어찌 차마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公 또한 울면서 그들을 달랬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포위망의 남쪽을 풀도록 하여, 왜적이 물러나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公은 수천의 장사들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추격하여 그 後陣을 공략하였다. 그리하여 大捷을 거두니 진천 일대가 이로써 안정될 수 있었다. 드디어 全軍이 龍灣으로 勤王하니, 임금께서 장하게 여기시며 곧바로 倡義使로 제수하였다.

丁酉年 4월 林川郡守로 나아갔으나 講學에 전념할 수 없자 사직하고 돌아왔다. 戊戌年 4월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되었다. 己亥年에 다시 富平都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丁未년에 嘉善大夫 刑曹判書 兼 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대저 宣武原從功臣 2등에 錄勳됨에 따라 贈職된 것이다. 錄券을 보라. 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에 特贈되었다.¹¹⁾

11) 『花遷堂集』권3 雜著, 「學義時事」, “壬辰之亂 首倡義兵於淸州地 與從事官李時發韓赫等 誓死討賊 蕩平淸州 移軍鎭川 圍賊旬日 援兵不至 義軍力竭 當時觀察使尹先覺 負國忘君 貪功?敗 以秘關沮援兵 而義兵指以爲亂兵 拘囚義兵妻孥 故不得任意討賊 累度傳令於列邑 而請援兵 列邑循環不救 曰不救巡察之令也 無一人來救者 壬辰四月傳檄 七月初四日起旅 得數千義士 直向淸州 時

위 기록의 내용을 개괄해보면, 첫 번째는 鎭川戰鬪 이전의 의병활동에 대한 개요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倡義過程부터 淸州城收復 · 鎭川勝捷을 거쳐 行在所로 勤王하기까지 의병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는 丁酉再亂 이후 軍功의 官職進出 및 官軍指揮官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소개이며, 네 번째 부분은 死後의 賞勳 · 追贈에 대한 기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주성전투보다 單獨의 戰勝이었던 鎭川戰鬪에 비중을 두어 관련 사적을 기록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위 내용을 다시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면, ① 1592년(壬辰) 4월 청주지역에서 처음으로 倡義, ② 7월 4일에 첫 出陣, ③ 趙憲과 더불어 각각 청주성의 南 · 西門을 공략하여 청주성을 수복, ④ 단독으로 鎭川戰鬪에서 勝利, ⑤ 義州 龍灣의 行在所로 勤王하여 倡義使에 제수, ⑥ 1597년(丁酉) 4월 林川郡守로 나갔으나 講學을 위해 사직, ⑦ 1598년(戊戌) 4월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임명되어 활동, ⑧ 1598년(己亥) 富平都護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①과 ③ 그리고 ⑤의 내용¹²⁾은 지금까지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각각 하나의 論難을 제공할만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초기 倡義起兵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는 忘憂堂 郭再祐(1552~1617)의 4월 22일 창의¹³⁾ 湖西地域의 경우는 조헌의 5월 3일 淸州謀議¹⁴⁾가 처음인 것¹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 기록대로라면, 박춘무는 적어도 조헌보다는 앞서서 청주를 비롯한 충청도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의를 한 인물이 된다.

또한 1592년 8월 1일 淸州城收復戰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조헌과 僧將 靈圭(?~1592)의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박춘무의 南門攻略論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만큼 실증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진왜란 초기의 龍灣勤王論은 당시 왜군의 주요 병력이 서울 이북에 주둔하고 있던 戰況¹⁶⁾을 고려할 때, 기

趙憲亦起義兵於沃川地 共趨淸州 與之合力 公攻其南門 趙公攻其西門 克復淸州 遂分師 趙公則向錦山 公向鎭川 圍賊旬日 援兵不至 不得已欲解圍 一方士女 爭指酒食 奔走來慰曰 哀我一城生靈 至今免屠戮之患者 皆將軍之力也 今若解圍 則敵必任意殺戮 何忍棄之 公泣而諭之 乃野虛其南 賊屏迹逃走 公以累千壯士 躍馬躡後 斬其後陣 遂獲大捷 鎭川一境 賴以安堵 遂全師 勤上龍灣 上壯之 卽拜倡義使 丁酉四月 出宰林川 以講學不專 棄歸 戊戌四月 爲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己亥又除富平都護府使 不赴 丁未 贈嘉善大夫刑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蓋宣武原從功臣二等 衣承也 見錄券 特贈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12)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각각 4월 倡義論, 南門攻略論, 龍灣勤王論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13) 李章熙, 1983. 『郭再祐研究』(養英閣), 65~69.

14) 『重峰集』附錄 권2, 「行狀」(『宋子大全』권207, 「重峰趙先生行狀」), “大駕西行 先生聞變痛哭 卽往淸州 與李瑀李逢金敬伯等 謀起義兵.”

15) 이석린, 앞 책, 115~117.

록대로라면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의 세 가지 문제, 즉 4月倡義論·南門攻略論·龍灣勤王論에 대한 사실여부의 비판을 중심으로 박춘무의 의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다만, 남문공략론 및 용만근왕론에 대해서는 우선 한 두 가지 논거를 통해 사실여부의 기본적인 비판에 그치고, 본격적인 논의는 해당 본론에서 전개하기로 하겠다.

먼저 4월창의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실 창의시기의 先後糾明이 의병활동의 이해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므로 주목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춘무의 4월창의론은 사실과는 다른 듯하다. 창의시점과 관련하여 『花遷堂集』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는 창의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檄文」¹⁷⁾ 1건이 있다. 그런데 이 격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至於鑾輿播越 豈忍言哉”라든가, “天兵渡遼 尙勤萬里之來救”라고 하여, 이미 4월 30일 宣祖의 避難이라든가, 明軍의 出兵 사실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창의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明軍의 參戰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6월 중순¹⁸⁾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춘무의 창의기병 시점은 7월 4일쯤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로는 그 휘하에서 從事官으로 활약한 碧梧 李時發(1569~1626)의 문집 『碧梧遺稿』¹⁹⁾를 들 수 있다. 『碧梧遺稿』에서 박춘무의 의병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花遷堂集』에 수록된 「격문」은 본래 이시발이 「仁義陣檄」²⁰⁾이라는 제목을 붙여 草案²¹⁾한 것이라는 사실²²⁾이다. 이는 이시발이 박춘무의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檄文作成 및 籌畫業務를 주관²³⁾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실이기도 하다.

16) 임진왜란 초기의 戰況에 대해서는 宋正炫, 1995. 「왜란의 발발」 『한국사』29(국사편찬위원회), 27~37 참조.

17) 『花遷堂集』권1, 「檄文」.

18) 明나라 군대가 처음 압록강을 渡河한 것은 6월 19일경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趙潑來, 1992. 「明軍의 出兵과 壬亂戰局의 推移」 『韓國史論』22(국사편찬위원회), 108~114 참조.

19) 본고에서는 『韓國文集叢刊』74(1991, 民族文化推進會)에 수록된 影印本은 인용하였다. 그 凡例에 따르면 후손 李春熙의 家藏本을 영인한 것인데 편집 및 간행경위는 未詳이라고 한다.

20) 『碧梧遺稿』권6, 「仁義陣檄」.

21) 『碧梧遺稿』권8, 「謚狀」(藥泉 南九萬 撰), “遂從義兵將朴春茂 草檄募兵千餘人.”

22) 『花遷堂集』권1, 「격문」을 『碧梧遺稿』의 「인의진격」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語義를 강조하기 위하여 몇 글자를 첨가하거나 일부 字句를 도치한 데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倡義檄文은 이시발이 초안한 것을 박춘무가 최종 수정한 것으로 보면 별반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3) 『碧梧遺稿』권8, 「神道碑銘」(『송자대전』권164, 「刑曹判書李公神道碑銘」), “遂從義兵將朴春茂 檄文籌畫 多出公手.” 및 『花遷堂集』권1, 「행장」, “老先生製忠翼碑文曰 遂從義將朴春茂 檄文籌策

특히 그 註記에 “壬辰義兵將 朴春茂起兵時”라고 덧붙여서, 박춘무 의병진의 倡義舉兵 당시에 작성한 격문임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시발이 그 자서전적 저술인 「自敍」에서 “壬辰亂初下向 秋 從事於義兵陣將則朴富平春茂也”²⁴⁾라고 하여, 자신이 박춘무의 의병진에 종사관으로 가담한 시기를 ‘가을(秋)’이라고 기록해놓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사실 즉 창의격문을 이시발이 초안하였고, 그가 박춘무의 휘하에 종사관으로 참여한 시점이 7월이라면, 그 창의시기는 7월 4일경²⁵⁾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²⁶⁾

그런데 박춘무 의병진의 舉兵이 7월초에 이루어졌다면, 그 창의 계기 및 과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宋齊民의 檄文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 같다. 다름아니라 송제민이 金千鎰²⁷⁾ 義兵陣의 구상에 따라 호서지방으로 내려와 소모활동을 벌이는 것도 이 시점이며, 더욱이 두 사람은 同門受學한 ‘歲寒의 故友’²⁸⁾였다는 사실이다. 즉 송제민이 충청지역으로 하향하여 의병을 모병하고자 하였을 때, 그가 우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지역인사관 다름아닌 土亭 李之涵(1517~1578)의 門下인 박춘무와 조현²⁹⁾이었을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하겠다. 이야말로 송제민이 발의·주선한 호서의병의 成軍過程에서 박춘무와 조현이 각각 右·左義大將으로 추대되었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海狂集』 「召募湖南義兵文」의 해당 기사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삼가 엿드리옵건대, 齊民은 지난달 23일에 金千鎰 의병장을 쫓아서 水原府에 도착하였습니다. 山城에 주둔하면서 5일간을 머물렀는데, 京城의 賊勢가 강성할뿐만 아니라, 淸州

多出公手.” 한편 주) 21의 「시장」에서는 격문의 草案者로 분명히 지칭하여 기록하였다.
 24) 『碧梧遺稿』권7, 「自敍」. 한편, 傳統曆法에서 가을은 7~9월에 해당한다.
 25) 이 날은 박춘무와 더불어 호서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현이 의병진의 본격적인 출정식을 公州 龍堂에서 행한 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重峰集』권13, 「起義時祭熊津龍堂文(壬辰七月初四日)」 참조.
 26) 『花遷堂集』의 관련자료 중에서도 작성시기가 앞서는 「행장」이라든가, 「삼대창의록서」 등에서는 7월 4일의 舉兵事實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4월창의론은 『花遷堂集』권1, 「격문」의 다음과 같은 기사, 즉 “天地無情 喪亂至此 橫流萬毒深入 三韓之舊疆 未靖妖氛式 至四月于今日”을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성급하게 4월에 격문을 돌린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27) 健齋 金千鎰(1537~1593)의 생애 및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趙潑來, 1983. 『壬亂義兵將 金千鎰研究』(學文社) 참조.
 28) 주) 5 참조.
 29) 『海狂集』卷下, 「傳」(南溪 朴世采 述), “二公 亦皆土亭門人也.”

와 鎭川에 주둔한 적들은 연이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외로운 군사로 깊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軍糧輸送路가 막힐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義陣에서는 모두가 本人을 추천하여 忠淸道 의병을 모집하도록 보냈습니다. 道路를 막고 있는 적을 소탕하여 救援兵이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충청도의 士友들과 더불어 의병에 종군할 것을 호소하였는데, 20일 동안에 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에 衆望을 쫓아서 함께 推進하기를, 前都事 趙憲을 左義大將으로 推戴하여 黃澗·永同 以南의 왜적을 막도록 하고, 前察訪 朴春茂를 右義大將으로 추대하여 錦江 以北의 적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³⁰⁾

우선, 박춘무와 조헌을 두 수반으로 하는 湖西義兵이 구성되는 계기는 일찍이 전라도 羅州에서 창 의하여 6월 중순에는 경기도 水原까지 北上하여 활동하고 있던 김천일 의병진의 發意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상을 단행했을 때의 예상과는 달리 漢城을 비롯하여 鎭川·淸州 등지에 왜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³¹⁾ 오히려 자칫 孤軍이 될지도 모를 위험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서의병의 倡義舉兵과 討賊活動을 촉구하여 相互連帶의 通路를 마련하자는 구상³²⁾이 제시되었던 것이다.³³⁾ 이에 따라 그 휘하의 종사관 송제민이 파견되어 소모활동을 전개한 것이 호서의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³⁴⁾ 이때 송제민이 그 책임자로 선발되었던 것도 앞서

30) 『海狂集』券上, 「召募湖南義兵文」, “伏以齊民 去月二十三日 從金義將 到水原府 留屯山城 留五日 以京城之賊尙熾 以淸州鎭川留賊亦肆 孤軍深入 糧道可慮 故一軍共推鄙生 送募忠淸義兵 以淸梗路之賊 以通來援之兵 故來與忠淸士友 號召義徒 兩旬之間 得二千餘兵 從衆望共推 前都事趙憲 爲左義大將 以禦黃永以下之賊 前察訪朴春茂 爲右義大將 以防錦江以上之寇.”

31) 이러한 戰勢變化는 7월 17일 明將 祖承訓이 지휘한 제1차 평양성 전투 이후, 왜군이 明軍의 參戰에 따른 충격으로 長期籠城戰으로 전략수정을 계획하고 있던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趙浚來, 1995, 「명군의 참전과 전세의 변화」, 『한국사』29, 75~79 참조.

32) 주) 30, 『海狂集』券上, 「召募湖南義兵文」, 기사 중의, “以淸梗路之賊 以通來援之兵.”

33) 이와 관련하여 조원래, 앞 책, 59~61에서 김천일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가 下三道와 行宮의 교통로 확보에 있었다고 하는 설명을 주목해 볼 만하다. 즉, 김천일은 掎角策 또는 掎角之勢라는 작전구상을 상당히 폭넓게 활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宣祖實錄』권33, 25년 12월 辛丑(15일)條에서, “備邊司啓曰, 伏見金千鑑書狀 及時渡江 與南兵 合勢掎角 策之上術也”라고 하고 있는 기사가 참조된다.

34) 물론, 趙憲의 경우 이미 5월 초에 창 의하였으므로 논리상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호서의병이 청주성 전투·금산 전투 등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과 관련된 계기성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천일 의병진이 北上過程에서 公州에 이르렀을 때 조헌이 찾아와 起義問題를 상의했다는 점(『健齋集』권2, 「年譜」, 萬曆 20년(宣祖 25) 6월, “至公州 重峯趙公憲 亦欲起義 來見先生 商議而去”)과 그가 이미 이전에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월 4일에 公州 龍堂에서 「起義時祭熊津龍堂文」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하였듯이, 아마도 그가 일찍이 이지함의 문하에서 활동하여 호서지방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謀議過程에서 송제민을 비롯한 박춘무·조현 등 호서의병의 지도세력은 보다 원대한 作戰構想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다름아니라 호남의병장 霧峰 高敬命(1533~1592)까지 연계하는, 이를테면 兩湖義兵의 相互連帶와 共同作戰이 구상되고 있었다. 『해광집』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놓고 있다.

이에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여 水原府에 이르러 주둔하였다. 이때 都城의 賊勢는 강성하였으며, 또한 淸州와 鎭川으로 나누어 주둔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견이 我軍은 상당히 고립된 반면, 적세는 매우 치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다시 湖西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掎角之勢’를 이루는 것보다 좋은 방도는 없다고들 하였다. 그러면서 이 일은 宋某(*宋齊民)가 아니면, 말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선생(*宋齊民)은 湖西로 가서 사대부들과 연결하여 의병에 종군할 것을 호소하였는데, 20일동안에 응모한 군중이 2000여 명에 이르렀다. 한편 이때 霧峯 高敬命도 호남에서 起義하여 錦山에 주둔하고 있었다. 선생은 이에 衆論을 모아서 前都事 趙憲을 左義大將으로 推戴하여 黃澗·永同 以南의 모든 왜적을 막아서 錦山과 통하도록 하고, 前察訪 朴春茂를 右義大將으로 추대하여 錦江 以北의 모든 倭寇를 방어하여 水原과 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를테면, 소식(통신)과 세력을 서로 의지하여 방어체계를 갖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이것이야말로 長江과 淮水에서 막는 형세로서 장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책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리저리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역을 나눠 계책을 낸 것이 많았다.³⁵⁾

이렇듯 단지 호서의병과 김천일 의병진이 상호연계를 도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춘무·조현·김천일·고경명의 의병진이 상호연대하여 호서·호남·경기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통해 왜군과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의 相互連帶的 防禦體制,³⁶⁾ 이른바 掎角之勢³⁷⁾를 구축하고자 하는 원대한 작전구상이 수립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활동범위에 있어

로 출정식을 거행한 사실이 주목된다.

35) 『海狂集』券下, 「遺事」, “乃率師北上 至水原府留屯 時都城賊勢尙熾 而又分據淸鎭界 衆議我軍甚孤 賊勢甚盛 不如更募湖西士馬 以爲掎角之勢 此非宋某 莫能任者 先生遂往湖西 連結士大夫 號召義徒 二旬間 衆至二千餘人 時高霧峯敬命 亦起義湖南 留屯錦山 先生乃與衆相議 推前都事趙憲 爲左義大將 俾禦黃永以下諸賊 通於錦山 前察訪朴春茂 爲右義大將 使防錦江以上諸寇 通於水原 聲勢相依 守制有備 先生以爲此實江淮沮遏之勢 而將來興復之策 不外是矣 周旋彼此 多有區畫.”

36) 주) 35, 『海狂集』券下, 「유사」 중의, “聲勢相依 守制有備.”

37) ‘掎角之勢’ 또는 ‘掎角策’이란 ‘사슴을 잡을 때 뒷발을 잡고 뿔을 잡는다’라는 표현에서 파생

서나 조직구성의 측면에서나 명실상부한 兩湖義兵의 共同作戰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작전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현이 黃澗·永同 이남의 적을 방어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실질적으로는 錦山收復을 목표로 고경명과 會陣할 것을, 박춘무로 하여금 錦江 이북의 왜군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사실상은 淸州 및 鎭川을 收復한 뒤 북상하여 水原에서 김천일 의병진과 합동하려는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로 호서의병의 역할에 기대하여 각각 금산과 수원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개척·유지하여 '기각지세'로 표현되는 상호연대적 합동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방안이었다. 물론 그 최종 목표는 상호연합군을 구성하고 북상하여 漢陽을 奪還함으로써 國王의 還都 基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³⁸⁾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와같이 임진왜란 초기 호서·호남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상호연합작전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나 연구사적 측면과도 관련하여, 자못 劃期的이고도 示唆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그 동기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조현·고경명 의병진의 행로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이 될 수 있으며, 또 박춘무 의병진의 행로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서 기초적인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조현과 고경명이 錦山戰鬪를 기약하여 진군했던 이유라든지, 청주성 수복 이후 조현은 금산으로, 박춘무는 진천으로 각각 행군한 까닭 등에 대한 명쾌한 기초적 해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의병진이 遊擊戰的 討賊을 위주로 다소 무계획적 활동을 전개하는 수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대한 작전구상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부여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검토해 볼 사항은 박춘무의 의병진이 청주성 수복전투에서 남문공격을 담당하였는가의 문제와 과연 의주의 행재소까지 근왕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 즉 南門攻

된 兩面挾攻作戰을 의미하는 고전용어이다. 실제 전투와 관련해서는, 後方에서의 牽制와 應援을 통해서 兩面挾攻의 효과를 도모한 작전개념으로 사용된 듯하다.

『海狂集』의 「격문」과 「유사」에서는 그 의미를 각각 “以淸梗路之賊 以通來援之兵” 및 “聲勢相依 守制有備”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소 의미상의 차이는 있지 않나 생각된다. 즉, 전자가 상대방에게 討賊과 應援(支援·救援)을 요청하는 소극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상호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합동작전의 수행이라는 의미를 보다 앞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작전개념은 平壤收復 이후부터는 官軍에서도 사용된 듯하다. 즉, 『宣祖實錄』권35, 26년 2월 己酉(12일)條에, “初平壤旣復 諸將多聚京城 天兵進住開城府 我國諸將 以次進陣 共爲犄角之歲”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 참조된다.

38)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시 兩湖地域 義兵陣이 내세우고 있던 北上勤王의 실질적인 의미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行在所로의 勤王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京城 收復을 통한 宣祖의 還都 根據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略論과 龍灣勤王論의 사실여부이다. 그런데 앞서 이 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해당 본문에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먼저 사실비판과 관련된 주요 論點을 제시해보고, 그 중에서 한 두 문제에 대한 論據를 통해 후술의 토대로 삼아보고자 한다.

박춘무 의병진의 남문공략론과 관련해서는 주·객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크게 네 가지 논의를 통해 그 사실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앞서 논의한 바 兩湖義兵의 연합구상 및 작전방략이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제시하였다. 실제로도 박춘무 의병진은 청주성전투를 거쳐 진천전투에서도 연이어 勝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본래의 작전구상을 충실히 이행해가고 있었다. 이를테면, 작전구상이라는 주체적 의지와 행동의 측면에서 남문공략론은 충분히 근거를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투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花遷堂集』의 기록은 실상 短篇的이며 孤立的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청주성의 시설구조에 비춘 彼我間의 攻擊·防禦構想의 일반적 가능성이라든가, 왜군에 의해 占據당한 이후부터 다시 奪還할 때까지 戰鬥狀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통해 그 사실성을 추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청주성의 시설배치에 토대하여 피아간의 작전·전략 등의 측면을 추론해 볼 때에도 그 사실성은 충분히 논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古邑志나 古地圖에 나타난 淸州의 古邑城, 즉 淸州牧 邑城의 시설배치를 보면, 남문을 정문으로 하여 기본 간선로는 남문과 북문으로 연결되고 있었다.³⁹⁾ 또 湖右地域에서 읍성으로 통하는 大路도 당시 水庫峴(또는 華淸嶺, 배고개(梨峴), 현재는 慕忠고개)를 넘어서 정문인 남문으로 연결되고 있었다.⁴⁰⁾ 그렇다면 당시 청주성을 占據하고 있던 왜군의 측면에서나, 다시 奪還하려는 조선군의 입장에서나 남문은 주요 작전지역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시 왜군의 占據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전투가 지속되고⁴¹⁾ 있던 상황에서 彼我間의 攻防이 西門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39) 『輿地圖書』 「忠淸道」 편에 수록된 '忠淸兵營圖'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바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邑城을 이용한 淸州兵營城은 남문과 북문에만 甕城을 시설하고, 서문과 동문에는 단지 누각만을 갖추고 있다. 특히, 兵營은 邑內의 서남부에 邑衙는 서북부에 자리잡고 있고, 남문 밖에 鎭營과 將校廳을 배치하고 있어 남문이 정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병영 및 관련시설은 남문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문은 곧바로 鎭山인 堂山·牛岩山 등과 연결되므로, 군사적인 작전을 펴기에는 적합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도면 1] 淸州城 施設現況圖 참조. 한편 청주읍성의 시설배치 및 공간구조에 대한 문화정치지리적 연구로는 任德淳, 1998. 「古淸州의 空間的 配置와 象徵性」 『大韓地理學會誌』33-4(대한지리학회)가 참조된다.

40) [도면 2] 淸州城 周邊現況圖(『淸州市都市計劃變遷史圖集』(1994, 淸州市)) 참조.

사실상 무리이다.

청주성 점거 이후 벌어진 피아간의 공방전에서 北門의 전투사실에 대해서는 忠義衛 李興宗의 활약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忠義衛 李興宗이 鄉兵을 모아 적을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北門에 이르러 敗散하였는데, 그만은 능히 홀로 몸을 돌려서 적을 사살하여 그 兇鋒을 꺾었다.⁴²⁾

즉 청주성전투는 서문만이 아니라 북문 등에서도 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진행되었을 것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전투과정에는 다양한 鄉兵勢力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義兵將 朴友賢의 활동에 대한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朴友賢, 字는 希聖이고 本貫은 密陽이다. 임진왜란 때 重峯 趙憲의 휘하로 종군하였다가 청주에서 전사하였다. 그 4일 후에 조헌이 (청주에서) 勝捷을 거두었다. 그 戰勝紀念碑文에서 말하기를, 義士 朴우현이 전사하니, 선생(*조헌)이 급히 나아가 싸웠다고 하였다. 忠誠스런 奴婢로 水鐵이 있어서, 말가죽과 맨 몸의 屍身을 거두어 江西面 靑龍菴에 返葬하였다. 持平에 추증되었다.⁴³⁾

즉 조헌과 승장 영규가 주도한 8월 1일의 청주성 수복전투가 있기 나흘 전에 또다른 향토의병장인 朴友賢이 참전하였다가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더욱이 조헌의 청주 진군은 朴우현의 전사에 자극받고 있었다. 이렇듯 왜군의 점령 이후 한 달이 넘게 지속된 청주성전투에는 義·官軍을 망라하여 다양한 병력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작전지역도 서문·북문 등을 포함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청주성 수복이 이러한 다양한 사실은 論外로 한 채 조헌과 영규의 의·승연합군에

41) 본고, 35 참조.

42) 『宣祖實錄』권30, 25년 9월 戊辰, “忠義衛 李興宗 聚兵鄉谷 殺賊甚多 至於北門之潰 獨能回身射賊 挫其兇鋒.”

43) 『朝鮮實輿勝覽』「清州郡」(1933, 李秉延 撰), 忠臣條, “朴友賢 字希聖 密陽人 壬辰赴趙重峯幕 殉節清州 後四日重峯得捷 其戰捷碑文曰 義士朴友賢戰死 先生及趨戰云云 忠奴水鐵 馬革裸尸 返葬于江西面靑龍菴 贈持平.” 한편 필자는 1998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한 청주시 문화유적 조사과정에서 朴우현의 묘표와 함께 그 묘소 바로 앞에 있는 忠奴 水鐵의 碑石도 발굴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文化遺蹟分布地圖—清州市—』(1998. 충북대학교박물관), 160 및 267 참조.

의한 서문공격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던 설명은 그 일면만의 기록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박춘무의 의병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 의 당시부터 청주성 수복을 목표로, 다름아닌 청주지역에서 거병한 향토의병이었다. 따라서 그의 의병진은 어느 병력보다도 앞장서서 청주성전투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공약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與重峰趙先生蕩平淸州”⁴⁴⁾라든가, “朴春茂攻南門 趙憲功西門 勦滅賊徒”⁴⁵⁾라든가, “會重峰于淸州 逆倭合戰”⁴⁶⁾이라든가, “能奮義討賊 不顧其身 誠與趙憲一般”⁴⁷⁾이라고 한 기록은 후대의 윤색과 개입이 없지 않았겠지만, 충분히 사실에 바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마지막으로 검토해 볼 사항은 박춘무의 의병진이 과연 의주의 행재소까지 근왕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 즉 용만근왕론의 사실여부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록은 사실상 긍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박춘무의 의병진이 청주성 수복에 이어 진천승첩을 거두었다고 추측되는 8월 말⁴⁹⁾까지 我軍의 이렇다할 만한 승전사실 하나 없던 漢陽 이북의 敵陣을 뚫고, 그것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의주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기록은 아마도 그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한 이시발이 이듬해 4월 江西의 行在所⁵⁰⁾에 도착하여 곧바로 還都를 요청하는 상소, 즉 ‘聽還都疏’를 올렸던 사실⁵¹⁾이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왜곡되어 정착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44) 『花遷堂集』권2, 「行狀」.

45) 『花遷堂集』권3, 「追錄 上言草」.

46) 『花遷堂集』권2, 「시장」.

47) 『花遷堂集』권2, 「행장」.

48) 그렇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重峰集』에 박춘무에 대한 기록이 결코 없지 않으면서, 어째서 청주성전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박춘무는 조헌과 같은 계기로 창 의하여 별도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헌의 의병진에서 그 사적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이 그들 나름의 행적을 기록하고, 또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일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반면에, 조헌이 그 사적을 기록하고 있는 영규라든가, 防禦使 李沃 등은 관군 지휘관이거나 창의과정이 달랐다. 특히, 영규는 조헌과는 별개로 기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성수복전에서 위기투합하여 그의 절제에 따랐으므로 그 사실이 특기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9) 본고, 40 참조

50) 이때 宣祖의 御駕는 3월 하순 平壤의 大同館을 거쳐 江西까지 移陣해 있었다.

51) 『碧梧遺稿』권3 疏筭, 「請還都疏」, “萬曆癸巳夏 宣祖大王 自西路移駐江西 四月 以槐院正字 赴

그 단적인 근거의 하나로서 당시의 상황을 가계기록에서는 “扈從龍彎 上嘉之 配倡義使 爲龍驤衛折衝將軍 防禦西犯之賊”⁵²⁾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실상은 勤王 당시의 사실과 丁酉再亂 이후의 행적이 하나로 통합되어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박춘무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 중에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 즉 4월창의론, 청주성 남문공략론, 용만근왕론의 세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구성과 및 관련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사실여부를 재구성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청주성 남문공략론을 제외하고 4월창의론, 용만근왕론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춘무의 의병활동이 호남의병 종사관 송제민의 교섭에 따라 조현·김천일·고경명을 연결하는 兩湖義兵이 이른바 기각지세로 표현되는 하나의 상호연대적 공동작전을 수행하고자 하였음을 밝혀 낸 것은 뜻밖의 새로운 성과였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비판을 바탕으로 박춘무의 의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Ⅲ. 義兵活動의 社會經濟的 基盤 및 作戰構想

義兵이란 전쟁이나 반란 등의 위기상황이 초래됐을 때 朝廷의 徵發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국가 또는 국왕을 위해 싸우는 民軍, 즉 民兵隊이다. 그런데 王朝國家에서는 倡義起兵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民間의 恣意的 軍事活動인 만큼 국법으로 금지한 私兵의 運用이라는 점에서 자칫 逆謀行爲로 취급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⁵³⁾ 즉,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起義의 추진이란 性理學的 敎育을 받은 臣民으로서의 당위적 명분을 갖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禁忌事項의 하나인 私的인 軍事活動이라는 점에서 선불리 행동으로 옹기할 수 있는 문제만도 아니었다.

게다가 의병활동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적인 군사활동인 만큼 兵器 및 軍糧 등을 스스로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私財를 동원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자칫 家系의 경제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였다. 이렇듯 의병활동은 아무리 외적침입의 격퇴·반란의 진압이라는 당위적 명분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

行在 上章請速還都收拾人心。”；『碧梧遺稿』 권7, 「자서」, “癸巳夏 赴行在所 時大駕駐江西 抗疏請回鑾漢都 兩司回以論請 遂回鑾于京城。”

52) 『順天朴氏愍襄公派譜』坤, 『重刊順天朴氏世譜』原編2, 23.

53)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倡義將이었던 郭再祐가 국왕의 召募敎書가 작성(4월 25일)되기도 전인 4월 22일에 擧兵하였다가 逆謀로 몰려, 자칫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던 것을 鶴峯 金誠一(1538~1593)의 중재로 가까스로 해결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 중의 하나이다.

가적으로나 개인적 측면에서나 쉽사리 허용·가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창의기병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사회적 여건⁵⁴⁾ 의병장의 명망은 물론 그에 수반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초기에 창의한 의병장들이 대개 高官은 아니더라도, 官職經歷이 있던 地域名望家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朴春茂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찍이 前職 察訪⁵⁵⁾을 거쳤으며, 그것은 이미 지역의 重望받는 士林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던 데에 따른 推薦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박춘무의 의병활동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倡義의 基盤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라든가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家門이 언제 청주지역에 入鄕하고, 또 지역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등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유력가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학문적 배경도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 방면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花遷堂 朴春茂는 字는 至元, 본관은 順天이며, 花遷堂은 그의 堂號이다.⁵⁶⁾ 그의 집안이 淸州地域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증조부인 朴宜倫 때부터였다.⁵⁷⁾ 순천박씨의 始祖는 高麗 개국공신 朴英規이며, 흔히 平陽朴氏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中興祖인 朴蘭鳳의 君號를 순천의 故地名인 平陽에서 취했기 때문이다.⁵⁸⁾ 이렇듯 순천박씨 가문은 고려초부터 연원 하였으나 대부분의 가문이 그러하듯이 이후의 가계는 불분명하여, 실제로는 端宗復位運動을 주도했던 死六臣의 한 사람인 朴彭年의 고조부로 보문각 대제학을 지낸 中始祖 朴淑貞으로부터 계통을 세우고 있다.⁵⁹⁾

54) 특히 김천일·고경명 등 전라의병의 首倡者들은 기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전라관찰사 李洸의 北上勤王軍이 5월 초 公州 부근에서 자진 해산하여 기대를 저버린 데 분개하여 起義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55) 『花遷堂集』권2, 「행장」, “以學薦聞 除南掌令 不赴 除郵官暫就 果爲親而仕也.” 한편,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찰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柳成龍의 『懲愆錄』에서는 단지 ‘士人’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56) 『花遷堂集』권2, 「행장」.

57) 「順天朴氏承仕郎公三代墓碣銘」(1939. 朴魯重 撰) 『順天朴氏實錄』1(1994. 東泉學術文化財團), 785~793.

58) 『順天朴氏實錄』1, 11~13.

59) 『順天朴氏實錄』1, 13의 ‘上系’부분 참조. 한편 『花遷堂集』권2, 「행장」에서도, “其後有集賢殿提學淑貞 是爲公十一代祖也”라고 하여, 先代에 대한 계통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11代祖인 朴淑貞부터이다.

朴淑貞은 益齋 李齊賢(1287~1367) 및 謹齋 安軸(1287~1348) 등 당대 대성리학자의 知遇를 받을 만큼 학문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忠肅王 13년(1326)에는 國子祭主를 지냈고, 關東存撫使로 나갔을 때에는 高城 三日湖에 四仙亭, 강릉 경포대에 鏡湖亭, 울진에 翠雲樓를 세우고 이제현과 안축 등으로 하여금 창건기를 짓게 하면서 풍류를 자랑하였다.⁶⁰⁾ 이후 박춘무의 先代는 朴元象→朴安生→朴仲林으로 이어진다. 朴元象은 박숙정의 다섯 자제 중 막내로 工曹參判(?典書)를 지냈고, 退官 후 당시 公州 부근의 儒城縣으로 낙향하여⁶¹⁾ 청주 부근에서 순천박씨의 기반을 닦게 된다.

박춘무의 가문은 박안생의 뒤를 이은 8代祖 朴仲林에 이르러 다시 한번 文章家로서의 명성을 드높인다. 朴仲林(1400~1456)은 당호가 閒碩堂으로 세종 5년(1423) 식년시에서 乙科 3인 중 2등으로 급제하여, 당일에 6品職인 仁壽府丞에 발령받는 영광을 누리며 벼슬 길에 나아갔다. 集賢殿修撰으로 있으면서 왕세자(文宗)의 師傅로 활약하였고, 修文殿 및 禮文館大提學·集賢殿提學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다.⁶²⁾

그리고 박중립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바로 그의 맏아들인 朴彭年을 비롯하여, 그 門下에서 배출된⁶³⁾ 成三問·河緯地 등이 端宗復位運動을 주도하였다. 즉, 단종복위운동은 당시 박중립의 문하에서 하나의 학맥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박중립이 文宗의 스승이었고,⁶⁴⁾ 박팽년 또한 집현전 학사들의 수장으로⁶⁵⁾ 또 端宗의 스승으로⁶⁶⁾ 金宗瑞(1383~1453) 등 三議政과 더불어 문종을 誥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⁶⁷⁾ 死六臣事件 당시 世祖가 謀議의 배후를 추궁하였을 때, 박팽년이 “家庭의 교훈일 뿐이다”⁶⁸⁾라고 하였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반증이 아니었던가 생

60) 최완수, 1998. 「취금헌 박팽년」 『조선왕조 충의열전』(돌베개), 179.

61) 「순천박씨승사랑공삼대묘갈명」에서는 박원상이 退官 후 懷德(현재 大田市)으로 낙향하였는데, 鍾鼎家의 명성을 얻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宋子大全』 권193, 「高麗典書朴公墓表」도 참조된다.

62) 최완수, 앞 책, 180~184 참조.

63) 『花遷堂集』 권2, 「행장」, “吏曹判書仲林 在世祖朝丙子 與子醉琴軒彭年 景春軒引年…門人梅竹軒 成三問 河緯地 俱被露梁之禍.”

64) 최완수, 앞 책, 192~195.

65) 최완수, 앞 책, 190.

66) 최완수, 앞 책, 220.

67) 최완수, 앞 책에서는 박중립과 김종서가 박중립의 장인인 金益生을 매개로 외척관계를 이루었으며, 김종서는 박중립을 대사헌으로 추천하면서 ‘族人’이라고 호칭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즉, 사육신사건의 배경으로 당시 박중립·박팽년을 매개로 한 하나의 학맥과 다시 김종서 등을 중심으로 한 保王勢力으로서 하나의 인맥이 고려될 만하다.

68) 『花遷堂集』 권2, 「행장」, “當時 世祖考訊曰 誰教此謀 醉琴軒對曰 家庭之訓也.”

각된다.

단종복위운동 때에는 박팽년뿐만 아니라, 그 동생인 引年·耆年·大年·永年 등이 모두 참가하거나 연루되어 참화를 입었다. 이들 형제 중에서 박춘무의 선대는 朴引年으로 7代祖이자 派祖이다. 朴引年은 호가 景春軒으로 역시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참화를 당했으며,⁶⁹⁾ 그 아들 朴璣도 연좌되었다. 그리고 설화적인 측면이 개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손자인 朴原卿을 ‘義僕’이 몰래 업고 珍島로 숨음으로써 가계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⁷⁰⁾

이렇듯 사육신사건으로 絶門의 위기에 놓였던 박춘무의 집안이 다시 재기하고 淸州에 자리를 잡은 것은 그의 曾祖父인 朴宜倫 때부터였다. 박의륜이 청주에 입항하는 과정도 다소 모호한데, 어쨌든 家系의 기록에 따르면 사육신사건의 참화를 입어 珍島로 숨어들었던 그의 집안이 고조부인 朴仁龍代에 赦免(夢宥)되고 官職까지 제수받음에 따라 물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어 박의륜이 伯父를 모시고 청주에 정착하였다고 한다.⁷¹⁾

청주에 정착한 이후 박춘무의 선대는 당시 지역의 세력 있는 가문과 통혼관계를 맺으면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증조부 박의륜은 南陽洪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조부 朴坤孫은 淸州韓氏, 부친 朴箕精(1480~1507)은 龍仁李氏·全義李氏·慶州金氏 등 3명의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이들 가문은 모두 지역의 勢力家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박곤손의 부인 청주한씨는 韓孟誠의 딸로 예조판서를 지낸 韓立의 손녀였으며, 박기정의 첫째 부인 용인이씨는 李克儉의 딸로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李伯指(?~1419)의 증손녀였다.⁷²⁾ 특히, 부친 박기정은 字는 殷卿으로 일찍이 학문적 자질을 갖추어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지역에서 儒學 訓導·教授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학문적·사회적 명성을 쌓았음은 물론 주변의 세력가문과 연이어 통혼하면서 가문이 번성하는 기반을 닦아 갔다.⁷³⁾

69) 『花遷堂集』권2, 「행장」.

70) 주) 58과 같음.

71) 「순천박씨승사랑공삼세묘갈명」, “諱仁龍 始夢宥 除典農侍副正 於承仕郎公考也 承仕郎公 與伯氏光州牧使諱宜形 自湖南移奠茲土 谷名曰松倉.” 이때 박의륜이 청주에 정착하게 되는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미 그의 선대인 朴元象이 懷德으로 낙향한 이후 박중립·박팽년대를 거치면서 ‘懷德~淸州’ 일대에 세거한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淸州로의 입항조인 朴宜倫의 3男 朴良孫의 경우 忠南 燕岐로 이사하였다는 기록(위의 墓碣銘 ; “良孫主簿 後移燕岐”)이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朴箕精이 활약하였던 중종·명종년간에 이르면, ‘懷德~淸州’ 일대에 세거하였던 순천박씨의 기반이 재건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박중립이 활동하던 시기의 全義·全東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2) 주) 58과 같음.

이렇듯 부친 박기정대에 사회적·학문적 기반을 갖추게됨에 따라 박춘무의 집안은 사육신사건 이후 비로소 再起의 기회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기정은 경주김씨와의 사이에서 5남3녀를 두었는데,⁷⁴⁾ 맏아들인 朴春莢은 1548년(명종 3) 별시문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장령·회인현감·대구목사 등을 지냈고, 東洲 成濟元(1506~1559)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명성을 자랑하였다.⁷⁵⁾ 둘째형 朴春華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셋째형 朴春翁은 壽職으로 同樞를 지냈다.⁷⁶⁾ 그리고 동생 朴春蕃은 자는 慶元으로 임진왜란 때 함께 종군하였으며, 戶曹判書에 증직되었다.⁷⁷⁾

한편 박춘무 자손대의 주요 관계진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박춘웅의 장남 朴錫命은 임진왜란 때는 조방장으로 활약하였고 벼슬은 安州牧使에 이르렀다. 박춘번의 장남 朴順命은 副司果, 그 3남 朴三命은 蔭仕로 監察에 나아갔다고 한다. 박춘무의 경우에도 장남 朴新命은 宣傳官을 지냈고, 부친을 따라 종군한 차남 梅隱堂 朴東命(1575~1636)은 관직이 泰安郡守에 이르렀다.⁷⁸⁾

이렇듯 박춘무의 집안은 그 부친 박기정대 이후에는 청주 부근에서 하나의 뚜렷한 가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경제적 규모도 갖추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계적 배경은 박춘무의 창의기병에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은 李時發과 韓赫이 종사관으로 참여하는⁷⁹⁾ 외에는 군사지휘를 그 동생 박춘번과 둘째 아들 박동명이 맡는⁸⁰⁾ 등 주로 家系的 基盤 위에서 단기간에 成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⁸¹⁾ 다시말하면, 이것은 창의기병을 단시일에 실행

73) 박기정의 墓地銘은 明宗代 최고 遺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東洲 成悌元(『明宗實錄』권 33, 21년 7월 戊申條 참조)이 지었는데, 성제원은 박기정의 맏아들로 懷仁縣監을 지낸 朴春榮과 교우관계에 있어 그 부친의 묘지명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通訓大夫教授朴公諱箕精墓地銘』, 『順天朴氏實錄』1, 1030~1031 및 『朝鮮實興承覽』, 『淸州郡』, 人物篇 學行條 참조.

74) 박기정의 묘지명에서는 그 가족관계를 경주김씨와 관련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용인 이씨와 전의이씨 사이에서는 소생이 없었던 듯 하다.

75) 『通訓大夫教授朴公諱箕精墓地銘』, 『順天朴氏實錄』1, 1030~1031.

76) 주) 58과 같음.

77) 『花遷堂集』권2, 「행장」 및 『朝鮮實興承覽』, 『淸州郡』, 人物篇 原從勳條 참조.

78) 『順天朴氏實錄』1, 13~35의 '상계'부분 참조.

79) 『花遷堂集』권2, 「행장」, “及至壬辰之亂 以忠翼公李時發 及韓赫爲從事.”

80) 『花遷堂集』권2, 「시장」, “以子東命 及弟春蕃 爲前鋒.”

81) 이와 관련하여, 『花遷堂集』권1, 「격문」에서, “主欲方深 尙晚爲臣一死 茲與一二同志 糾合數千義士”라고 기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은 처음부터 몇몇의 외부인사만이 참여하는 형태로 謀議가 진행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조건도 나름대로 갖추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의병활동에 필요한 병기 및 군량조달과 관련해서는 종사관이었던 이시발과 한혁의 역할도 주목해 볼만하다. 종사관의 임무에서 주요 비중의 하나가 병기 및 군량조달 등의 후방지원 업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우선 이시발⁸²⁾은 그 가문이 고려말 名儒 益齋 李齊賢의 후손으로 일찍이 청주 북부의 梧根驛에서부터 草坪에 이르는 사이에 세거하였으므로 나름대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의 집안은 박팽년대에는 순천박씨와 통혼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으므로,⁸³⁾ 이때까지도 일정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花遷堂集』 등의 기록에서는 그가 격문작성 및 주획업무를 주관한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韓赫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前職 參奉을 지냈다는 것⁸⁴⁾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그런데 만일 그가 淸州韓氏라면 일정하게 군수조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만하다. 淸州韓氏라면 일찍이 고려초부터 청주지역에서 유력호족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고, 특히 조선초에 번성하였다.⁸⁵⁾ 따라서 그만큼 왜군의 약탈에 대한 위기의식도 상대적으로 강했을 것이므로, 自保의 側面에서도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다. 특히 그 세거지는 청주의 남서부에 걸쳐 있었는데, 주변의 八峯山⁸⁶⁾에 인근

82) 이시발이 박춘무의 의병진에 종사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시발은 임진왜란 당시 承文院의 假注書로 있었는데, 서울마저 위협받고 도성 안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우선 老母를 山谷으로 피난시키고자 고향인 淸州 草坪으로 내려왔다. 귀향 후 노모와 가족을 從堂叔이자 스승이었던 李得胤에게 의탁하여 靑川부근 後額里로 피난시킨 다음 곧바로 상경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선조는 西遷하였고 서울로 가는 도로도 왜군의 수중에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자, 그대로 피난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척관계에 있었던 박춘무를 중심으로 청주부근에서 소모활동이 이루어지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 그는 촉망받는 文才로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24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주획업무를 주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사실은 『碧梧遺稿』 권7, 「자서」 등이 참고된다. 그러나 이시발은 1593년 4월부터는 承文院 正字로 다시 관직에 복귀함으로써, 박춘무 의병진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83) 『碧梧遺稿』 권8, 「신도비명」, “國朝有尹仁 實爲平安道觀察使 是生昌平縣令公麟 娶朴醉琴彭年女 世傳有陰功 生八男.”

84) 『花遷堂集』 권2, 「시장」, “參奉韓赫 爲從事官.”

85) 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淸州牧 人物條 本朝篇’의 대부분이 청주한씨로 기술되어 있다.

86) 청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名山의 하나로, 조선후기 읍지에서부터 기록이 등장한다. 『輿地圖書』淸州牧 山川條에서는, “八峯山 在州南十五里 文義多子山 來爲安心寺主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 서부지역은 왜군의 노략질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부친 박기정대부터 통혼관계에 있던 청주한씨 가문에서 군량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⁸⁷⁾

그런데 박춘무가 이렇듯 창의기병하고 호서의병의 우의대장으로 추대되기까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보다는 학문·학연적 배경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起義의 계기를 마련한 송제민이나, 함께 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헌이나 모두 이지함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으며, 이들은 이미 청년시절에 함께 ‘歲寒契’를 조직⁸⁸⁾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保寧地域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이지함은 호서지역은 물론 호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나의 뚜렷한 학풍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學緣的 紐帶를 바탕으로 송제민이 소모활동을 벌이게 되자 박춘무·조헌 등이 의기투합하여 단기간에 ‘기각지세’로 표현된 연합작전까지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춘무가 언제부터 이지함의 문하에서 수학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그는 동생 박춘번과 함께 居處를 이지함이 있던 淸州 山東의 花川⁸⁹⁾으로 옮기고 이를 기념하여 堂號를 花遷堂이라고 붙이면서까지⁹⁰⁾ 그 학문을 추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춘무의 인물과 학문적 자질을 높이 평가한 사람도 다름아닌 조헌이었다. 우선, 조헌은 당시 朋黨과 學政의 폐단을 논한 상소문에서 이지함을 ‘東方의 伯夷’에 비유하여 贈職과 致祭를 요청하면서, 그 수제자로 조카였던 明谷 李山甫와 더불어 박춘무를 꼽으면서 그 학문을 ‘恬靜自守’⁹¹⁾라고 평가하였다.

87) 필자로서는 이시말은 주회업무, 한혁은 군량조달을 주로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하고 있다. 한편, 家傳上으로는 박기정의 셋째 사위인 鄭舜年과 박춘무의 첫째 사위인 閔汝涵이 군량을 제공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 정순년은 본관이 東萊이고 兵判 而漢의 현손으로 主簿를 지냈다고 하며, 민여함은 본관이 驪興이고 부친은 思謗으로 軍資監正을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가계의 전승일 뿐이어서, 역시 하나의 추정에 그칠 뿐이다.

88) 『海狂集』券下, 「유사」, “戊寅 先生年三十 從土亭 於湖西 始與趙重峯朴春茂相見 尼言結交 託爲歲寒契.” 한편, 이때 ‘歲寒’이라는 契名을 택한 것에 대해, “蓋先生 深之二公之忠義 期以世亂 共濟艱危 此其所以以歲寒 名契之義也歟”라고 하고 있던 것에서, 송제민의 소모활동에 박춘무와 조헌이 두 수반으로 추대되는 까닭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89) 『朝鮮實輿承覽』, 청주군 산천조, “花川 在郡東四十里 則七里灘下流.”

90) 『花遷堂集』권2, 「행장」, “及長 受業於土亭李先生門下…而久留門下 則以離親爲憂 與先生舍于淸州山東花川 因號花遷堂 陪親從師 誠以養志.”

91) 『宣祖修正實錄』권20, 19년 10월, 및 『重峰集』권5, 「辨師誣兼論學政疏」, “獨於李之涵 高世之行 未有所及…尤好獎誨後生 李山甫之孝友忠信 朴春茂之恬靜自守 具有所自.” 한편 그 語義는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하며 스스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 지킨다’라는 뜻이다. 즉 주) 95 인용

또한 조헌은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그 일 년 전에 군사적 방어책으로 올린 「備倭之策」에서는 호서지방의 要害處를 지킬만한 자질을 갖춘 民間의 指揮官으로 그를 公州의 鄭晋生과 더불어 추천하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淸州의 前 察訪 朴春茂는 매우 침착하고 智謀를 갖추었습니다. 公州의 前 參奉 鄭晋生은 氣魄이 있어 義奮과 策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한 지역에 머물러 지키도록 한다면, 士卒들을 교화하여 서로 힘을 합해 요해처를 지켜내도록 할 만한 策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盜賊들의 叛亂도 저절로 소멸시켜 감히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⁹²⁾

즉 당시 박춘무의 인물됨은 매우 사려깊고 智謀를 갖추어 한 지역의 백성들을 교화할 만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외침을 틈탄 백성들의 왕조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도 충분히 자제시킬 수 있을 만한 인품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조헌의 박춘무에 대한 信望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박춘무는 당시 호서지역에서 이산보와 더불어 이지함의 학문을 계승할 대표적인 학자⁹³⁾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인품과 덕망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학식과 덕망을 일찍이 발견한 사람도 다름아닌 조헌이었다. 그러므로 송제민의 교섭으로 이지함의 문하를 중심으로 호서의병이 추진될 때 박춘무는 조헌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의대장으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때에 成軍된 박춘무 의병진의 규모는 대략 100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병진의 규모와 관련하여 『花遷堂集』에서는 700여 명,⁹⁴⁾ 數千名⁹⁵⁾이라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대략 1000여 명 정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우선 주목되는 자료는 그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한 이시발의 『碧梧遺稿』인데, 여기서는 그 규모를 1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다.⁹⁶⁾ 다음으로는 송제민의 격문을 들 수

문의 ‘深沈有智慮’와 상통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92) 『重峰集』권8, 「請斬倭使疏 附 備倭之策」, “淸州 前察訪朴春茂 深沈有智慮 公州 前參奉鄭晋生 慷慨有膽略 並令率民 居守一方 則不惟可教士卒以戮力鎮守之策 而亦足潛消他盜 俾不敢竊發矣”
- 93) 『花遷堂集』권3, 「東史文獻錄 土亭李先生門人」에서는 이지함의 문인을 이산보, 박춘무, 송제민, 徐致武, 金應天의 순서로, 『東國文獻』(奎章閣 도서번호 : 奎4138)「門生篇」에서는 이산보, 송제민, 서치무, 박춘무, 김응천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 94) 『花遷堂集』권3, 「행장」, “亦起義旅 得衆七百.”
- 95) 『花遷堂集』권3 잡지, 「거의시사」, “七月初四日起旅 得數千義士.”
- 96) 『碧梧遺稿』권8, 「신도비명」, “募得千餘人.”

있겠는데, 여기서는 20일 동안에 2000여 명이 모였다⁹⁷⁾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7월 4일 출정식 당시 조헌이 모병한 의병진의 규모는 數百으로 1000명이 되지 못했다.⁹⁸⁾ 그러므로 박춘무 의병진의 거병 당시의 규모는 1000여 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박춘무가 비교적 단기간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병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아무리 학문적·사회경제적 덕망과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름아니라 이즈음이면 왜군에 의한 무차별적 파괴와 야만적인 약탈을 겪게되면서 일반 백성의 민족적 저항의식도 그만큼 고양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한 인적·물적 약탈의 참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⁹⁹⁾ 왜군은 일단 주둔 거점을 마련하면 적게는 5~6명, 많게는 20~30명씩 떼를 지어 주변지역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민의 대응은 일차적으로 피난하여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내 지역민들은 피난처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내부적으로는 피난의 지속에 따른 식량수급 등의 문제도 없지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침략자 왜군에 의한 무차별적 파괴와 야만적인 약탈을 겪게되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에서 이러한 사정은 의병장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朴春蘭과 관련된 일화가 그 단면을 엿보게 한다.

형 春萱, 동생 春蓮과 더불어 孝道하고 友愛가 깊었다. 임진왜란을 맞아 모두 東林山 북쪽 光大洞으로 피난하였다. 왜적이 갑작스레 쳐들어왔던 까닭에 형 춘환과 부인만이 父母를 지키다가 한꺼번에 살해당했다. 춘란과 춘연은 부모와 형, 부인의 시신을 거두어 묻고는, 온통 원수를 갚을 생각뿐이었다. 그때 왜적은 청주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춘란의 형제는 陣中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춘란이 왜적 2명을 사살하고는 그 목을 베어 꼬챙이에 찔러 兵使에게 바쳤다. 병사가 (이 사실을) 보고하니, 곧바로 部將에 제수하였다.¹⁰⁰⁾

97) 주) 30 참조.

98) 『重峰集』권8, 「起兵後疏」, “乃與數三同志 間募閑役人數百 以七月四日 建旗招衆 篇走海郡 得募千人.” 즉 청주성전투에 참가한 조헌군의 병력은 1600여 명이었다. 그러나 이 병력은 일단 公州에서 成軍한 이후, 다시 洪州 등 湖右地域을 돌면서 추가 모병을 거친 이후의 규모였다.

99) 왜군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경상도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李樹健, 1990. 「朝鮮前期 慶北地域의 義擧와 義兵」 『慶北義兵史』, 274~275 참조.

100) 『輿地圖書』 『淸州牧』, 人物條, “朴春蘭 與兄春萱弟春蓮孝友 俱至壬辰倭亂 避亂于東林山北光大洞 倭賊猝入 春萱與妻抱父母 一時被戮 春蘭春蓮 收瘞父母及兄妻屍 切欲報讎 其時倭賊大陣于

즉 부모와 가족이 왜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사태를 겪게되면서, 자발적 발로로서 일반 백성의 저항정신이 싹터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戰亂 이전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이반되었던 민심도 점차 同族的 公同 運命體意識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위의 일화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일찍이 國王의 召募敎書에도 뜻있는 志士들의 號召에도 별반 반응이 없던¹⁰¹⁾ 오히려 한때는 침략군인 왜적의 嚮導가 되기까지 했던 일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救國 대열로 나서는 데에는 이렇듯 왜군에 의한 참화를 겪게되면서부터이다. 이제 그들은 自衛自保의 측면에서도 의병활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민족적 저항의식도 고양되어 갔다.¹⁰²⁾ 즉 임진왜란이 발발하고도 3개월이 지난 7월에 들어서야 의병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까닭이다.

박춘무의 의병진도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군중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박춘무의 거주지였던 淸州 福臺里¹⁰³⁾를 비롯한 淸州 西部의 父母山~八峰山 일대는 아직 왜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⁴⁾ 그런데 이제는 왜군이 公州를 비롯한 호우지역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므로 그만큼 위기의 식도 고조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즈음에 燕岐地域에서 鄭萬億이라는 俗名를 가진 僧兵將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록¹⁰⁵⁾은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었다고 여겨진다.

-
- 本州 春蘭兄弟 突入陣中 春蘭射殺倭賊二人 春箴斬其首 獻于兵使 兵使上達 春蘭卽除部將。”
- 101) 『宣祖實錄』권27, 25년 6월 丙辰, 慶尙道 招諭使 金誠一의 狀啓, “本道陷敗之餘 四散崩壞者 非但逃軍敗卒爲然 大小人民 舉入山林 鳥棲獸伏 雖反覆復開諭 而無人應募.”
- 102)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흔히 儒敎의 勤王精神· 鄉土保全意識· 民族的 抵抗意識이 논의되는데, 勤王· 自保을 넘어 討賊의 대열로 나섰던 일반 민중의 민족적 저항 의식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의 이러한 民族的 覺醒이야말로 身分의 對決意識을 넘어 救國의 隊列에 동참하는 바탕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 103) 『愍襄公花遷堂朴先生戰場紀蹟碑建豎錄』, 『愍襄公花遷堂朴先生戰場紀蹟碑銘』(1988. 金敬洙 撰), 29, “自淸州福臺 操鍊於爺孃山.” 한편, 成均館長 金敬洙가 지은 이 碑文은 문헌자료적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전해내려오던 家系의 逸話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104) 임진왜란 당시 청주지역에서 창의한 박춘무, 朴友賢(守義洞), 趙綱(蓮亭洞) 등이 모두 청주 서부의 부모산~팔봉산 일대에 세거하고 있던 가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 105) 『聞韶漫錄』(尹國馨 著 ; 『大東稗林(精嘉堂本)』19(1991. 國學資料院 影印本)), 509, “亂初余在公州 儒生申蘭秀張德蓋等 來見言曰 燕岐有僧 俗名鄭萬億者 能討賊 人呼僧將軍 名聲藉甚.” 그런데 이 정만억을 청주성전투에서 활약한 義僧將 靈圭로 기록한 문헌도 있는데(『藥坡漫錄』

이에 따라 청주 서부지역에서도 당시 호서일대에서 인품과 학문을 자랑하던 박춘무를 중심으로 한 창의기병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박춘무가 「學義時遺子孫文」에서 “大駕西奔 生靈魚肉 忠義之士 思欲奮臂勦滅 咸願鄙夫出與謀議 故不謀於妻子”¹⁰⁶⁾라고 하여, 倡義 당시 자손들에게 일단의 所懷를 밝힌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박춘무의 창의기병은 일반 민중이 왜군에 의해 魚肉처럼 살육당하고 있던 사태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일반적으로 발로하고 있던 시기에, 마침 송제민과도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共論의 推戴를 수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단기간에 의병진을 구성하였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휘하의 주요 편제는 주로 家屬을 동원하여 구성했던 듯하다. 家系 이외의 인사로는 종사관으로 이시발과 한혁이 참가하였을 뿐, 군사의 지휘는 그 동생인 박춘번과 둘째 아들 박동명이 선봉을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박춘무의 의병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鄉里自保라든가 復讐討賊만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송제민의 교섭을 통해 조현·김천일·고경명과 이른바 ‘기각지세’로 표현된 상호연대적 공동작전의 구상이 추진되었으므로, 군사의 운용도 이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제로도 일단 청주성수복전에 참가하고, 이어 진천으로 진군하는 까닭이었다.

일단 조직을 갖춘 박춘무의 의병진은 7월 4일에 향리인 북대리에서 출정식을 한 다음, 부근의 爺孃山에서 군사훈련을 하며¹⁰⁷⁾ 청주성전투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앞서 살펴 본 朴友賢 義兵陣이 활약하기 이전에는 청주성으로 진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은 없지만 일련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정문인 남문밖에 주둔하여 일단의 전투를 수행했을 것임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박춘무 의병진의 학문적·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춘무가 청주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선 그 증조부 이후 닦아온 지역적 기반에 힘입은 것이었다. 특히 그 부친 朴箕精은 학문적 명망에 있어서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사육신사건 이후 節門의 위기까지 몰렸던 그의 집안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청주부근에서 하나의 유력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이미 조선초부터 ‘청주~회덕’일대에 세거하였던 그 선대의 배경

(李希齡 著), 이 기사의 다음에 “牧使許頊亦言 本州僧靈圭自募曰 萬億甚劣 亦得將軍之命 我亦從軍”이라고 하고 있어, 이희령이 혼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무원종공신록권」에는 ‘靈圭’라는 이름의 승병장이 1등훈과 2등훈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同名異人의 승병장이 있었음도 참고로 밝혀둔다.

106) 『花遷堂集』권1, 「學義時遺子孫文」.

107) 주) 104 참조.

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가문이 淸州를 비롯한 燕岐·懷德地域을 중심으로 세거하였으므로, 주로 洪州·公州·沃川 등지와 인연을 맺고 있던 조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좌·우지역, 또는 상·하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춘무의 창의기병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기반을 제공한 것은 학연, 즉 학문적 명망이었다. 일찍이 그는 이지함의 문하에서 수학을 위해 거처를 옮길 정도의 열정으로 그 학문을 추종하였고, 그 결과 호서 및 호남지역에서 이산보와 더불어 그 문하를 대표할 만한 학자로 성장하였다. 한편 김천일 의병진의 구상에 따라 호서지역으로 내려와 소모 활동을 전개한 송제민도 다름 아닌 이지함의 문하였으며, 함께 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현 또한 이들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미 청년시절부터 艱難을 함께 共濟하기로 한 ‘歲寒의 故友’였다. 따라서 송제민이 호서지역에서 소모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지역의 명망가도 다름 아닌 박춘무와 조현이었다. 즉 박춘무와 조현 두 사람을 수반으로 호서지역의 의병진이 편성되는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박춘무의 의병진이 단기간에 대규모의 의병진을 편성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당시 일반 백성의 민족적 각성에 바탕한 것이었다. 왜군의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그만큼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중들은 支配階層의 收奪에 따른 反感과 身分的 對決意識을 뛰어넘어 民族的 抵抗의 隊列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야말로 7월 이후에는 의병진의 봉기가 일반화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일단의 진용을 갖춘 박춘무의 의병진은 이른바 ‘기각지세’적 연합작전의 첫 공략대상인 청주성을 향해 진군하여 갔다.

IV. 義兵活動의 展開

1. 壬亂 初期 淸州地域의 戰況과 淸州城 收復戰에서의 役割

1592년 8월 2일의 淸州城 收復은 임란 초기 의병이 거둔 주요 전과의 하나였다.¹⁰⁸⁾ 이 전투의 승리로 조선군은 湖西地方으로 우회하여 錦山을 통해 湖南으로 진출하려던 왜군의 예봉을 꺾을 수 있었다.¹⁰⁹⁾ 당시 왜군은 7월 17일 明將 祖承訓이 이끈 제1차 평양성전

108) 최영희, 1992. 앞 논문, 15.

투 이후 비록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明軍의 참전에 따른 충격으로 이른바 ‘京城軍議’를 통해 長期籠城戰으로 전환하고 군량을 조달을 위해 호남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왜군은 대규모로 서울을 비롯하여 鎭川·淸州 등지로 하향하여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호남 입성의 교두보인 錦山의 공략에 골몰하고 있었다.¹¹⁰⁾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의병진이 거둔 청주성 수복은 임란 초기 왜군이 주둔 거점의 하나로 설정했던 최초의 邑城奪還이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군의 士氣를 회복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주성 수복과 관련된 의병활동으로는 일반적으로 重峯 趙憲과 僧將 靈圭의 활약만이 알려져 있다. 즉 청주성전투 당시 정문인 南門의 공략을 담당한 또 다른 의병장 朴春茂의 활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조차 최근에야 비로소 그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¹¹¹⁾ 그런데 앞서 사실의 재구성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성 수복 당시 남문공략에 대한 『花遷堂集』의 기록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情況根據를 통해 그 事實性을 推論해볼 수밖에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논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 즉 兩湖義兵의 연합작전구상 및 그 이행사실의 주제적 측면, 당시 청주성의 시설구조에 비춘 피아간의 攻防構想의 일반적 가능성이라든가, 점령 이후의 전반적 전투상황 등 객관적 측면의 재구성을 통해 그 사실성을 추론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 논점 중에서 당시 양호의병의 작전구상이나 행군방략이라든가, 청주성의 시설배치에 토대한 피아간의 작전·전략구상의 측면 등에 대해서는 앞서 나름대로 그 論據를 밝혀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능한 한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청주성 수복 전후의 상황을 밀도있게 밝히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어 그 사실성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청주성 수복은 그 전략적 위치상 湖西地域 義·官軍의 귀추가 주목된 하나의 總動員의 戰勢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1592년 8월 2일의 청주성 수복은 결코 一朝一夕에 조헌과 영규로 구성된 義·僧聯合軍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1592년 8월 초 청주성 수복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 청주성이 왜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청주지역이 왜군의 북상로의 하나인 右路에 직접 위치한 주요 도시의 하나임은 물론 湖右地域

109) 이석린, 앞 책, 148~149.

110) 주) 31 참조.

111) 주) 9 참조.

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일찍이 5월 초 張智賢 義兵陣의 黃澗 · 永同戰鬪가 있는 직후 報恩의 함락과 더불어 왜군에게 점령된 것으로 이해된 것 같다.¹¹²⁾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당시 왜군의 보은점령으로 한 달만에야 沃川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조현은 곧바로 鄉兵 수백명을 이끌고 報恩과 懷仁의 경계를 이루는 車嶺(車衣峴, 일명 수리치재)¹¹³⁾으로 진군하여, 이곳에서 왜군과 접전하여 첫 勝戰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重峰集』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門下諸生과 더불어 鄉兵을 모집하여 報恩의 車嶺에서 적을 막아 차단하여 물리쳤다... 선생이 청주로부터(옥천으로) 돌아왔다. 門人 金節 · 金籥 · 朴忠儉 등과 鄉兵 수백명을 모집하였다. 적이 바야흐로 報恩에서 車嶺을 넘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러 차례 막아냈다.(한 번은) 갑작스럽게 賊兵과 부딪혀 거의 한 무리로 영길 뻔하였다. 선생이 크게 소리지르며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자, 門徒와 軍人들이 힘을 다하여 싸워서 물리쳤다. 이때부터 왜적은 감히 이 길을 통해서서 서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¹¹⁴⁾

즉 車嶺이라는 요해처를 이용한 조현의 저항에 부딪힌 왜군 제3번대 黑田長政의 병력은 일단 북상이 저지되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왜군은 보은에서 청주로의 直幹路인 회인의 皮盤嶺¹¹⁵⁾을 넘지 못하고 文義로 돌아서 청주를 점령한 것으로 판단된다.¹¹⁶⁾

왜군이 청주성을 점령한 것은 아마도 錦山이 점령된 시기와 거의 같은 6월 하순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宣祖實錄』에서 금산이 점령당한 날과 같은 기사에 왜군의 청주 진입을 기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왜적이 전라도 · 충청도의 郡縣에 침범하였다... 茂朱 · 龍潭에 침입하고 錦山에 주둔하였

112) 『重峰集』권8, 「起兵後疏」, “不意兇賊 又入報恩 以陷清州.”

113) 『大東地志』「報恩」, 山川條, “車衣峴…西十五里 懷仁大路.”

114) 『重峰集』附錄 권1, 「年譜」, 萬曆 20년 壬辰 5월, “與門下諸生 募得鄉兵 遮截報恩之車嶺以却賊…先生自清州還 與門人金節金籥朴忠儉等 募得鄉兵數百人 聞賊方自報恩踰車嶺 遂率兵數遮截 猝遇賊兵 幾爲所乘 先生大呼殺入 門生及軍人等 力戰却之 由是 賊不敢由是路而西.”

115) 『大東地志』「懷仁」, 山水條, “皮盤嶺 西北二十 直清州大路 高險透曲.”

116) 金正浩가 1865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大東地誌』의 ‘典故條’에서는 역대 倭의 침입과 관련된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충청좌도의 경우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은 永同, 沃川, 報恩, 文義, 清州, 木川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소 문제는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사실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충청도의 沃川·永同 등을 침범하고, 淸州에 주둔한 뒤 사방으로 나누어 불태우고 약탈하였다.¹¹⁷⁾

그런데 『瑣尾錄』의 기록에 따르면 금산이 점령당한 날짜는 6월 23일¹¹⁸⁾이므로, 청주도 이즈음을 전후하여 왜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왜군의 청주 진격에 따른 조선군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당시 청주를 비롯한 충청도 지역의 방어를 책임진 관군 지휘관은 忠淸道觀察使 尹國馨(初名은 尹先覺)과 兵使 李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왜적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투를 기피하여, 錦江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이에 조헌은 6월 28일¹¹⁹⁾ 윤국형에게 서신을 보내 전투를 기피하여 왜적이 縱橫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꾸짖었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¹²⁰⁾

한편, 청주성을 점거한 왜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방으로 나누어 분탕질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당시 청주성에 주둔한 왜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고찰할만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청주가 右路上의 주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湖右地域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이었으므로 상당한 병력이 머무르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기본적인 전략은 주요 간선로를 점령하여 급히 북상하면서 일정 거리마다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후방 부대를 주둔시켜 보급로를 유지하고, 한편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약탈을 통해 군수조달을 지원하도록 하는 형태였다. 그 주둔군의 규모는 대략 100~1000명으로 일정하지 않았는데, 청주지역은 그 전략적 위치상 최대한의 병력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단 주둔 거점을 마련한 왜적은 적게는 5~6명, 많게는 20~30명씩 떼를 지어 주변지역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였다.¹²¹⁾

왜군의 무차별적 약탈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상황 및 그에 따른 대응양상은 앞서 청주

117) 『宣祖修正實錄』권26, 25년 6월조, “倭賊 犯全羅忠淸郡縣…入茂朱龍潭縣 屯遶錦山 入忠淸道沃川永同諸縣 屯遶淸州 四出焚掠.”

118) 『瑣尾錄』제1, 「임진남행일록」 6월의 기사, “廿二日 茂朱栗峴 賊五六潛踰 探見虛失 而翌日 自沃川地赴錦山 與錦山守相戰 衆寡不敵 錦山太守 三戰三敗 至於落馬 未知生死 而賊已入郡 分掠四境云.”

119) 『重峰集』권9, 「與湖西巡察使尹先覺(後改名國馨)」 참조. 그 말미에 작성일자를 6월 28일로 기술해놓고 있다.

120) 『宣祖修正實錄』권26, 25년 6월조, “忠淸監司尹國馨 兵使李沃 聚兵錦江爲防衛 不敢進擊 趙憲移書國馨 責其逗撓縱賊 不聽.”

121) 李樹健, 1990. 「朝鮮前期 慶北地域의 義擧와 義兵」 『慶北義兵史』, 191~204 및 274~276의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한 또다른 의병장이었던 朴春蘭과 朴友賢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요컨대, 부모와 가족 그리고 이웃이 왜군에 의해 마치 魚肉처럼 살육당하는 참상을 직접 목도함에 따라 이제 일반 백성들은 支配階層의 收奪에 따른 反感이나 身分的 對決意識을 뛰어넘어 民族的 抵抗의 隊列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에 따라 다양한 향토의병이 활약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청주성은 7월 중순 제1차 평양성전투 이후 왜군이 長期籠城戰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군량확보를 위한 호남 진출의 중간거점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요 작전지역의 하나로 대두하여 피아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충청도 방위책임자인 巡察使 윤국형은 방어사 이옥과 助防將 尹慶祺로 하여금 청주성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옥이 지휘하는 관군은 연전연패하여 鳥致院 부근으로 퇴각한 이후 戰意를 상실하여 전투를 忌避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군으로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주목된 인물이 다름아닌 僧將 靈奎였다. 즉 승장 영규가 방어사 이옥을 대신하여 새로이 징발된 승병은 물론 관군에 대한 총지휘권을 위임받아 청주성으로 재차 진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에 대해 윤국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牧使(*公州牧使) 許頊도 말하기를, 우리 公州의 승려인 靈圭가 스스로 應募하여 말하기를 ‘萬億(*鄭萬億)은 보잘 것 없는 인물인데도, 장군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나도 出陣하여 동지 승려 아홉명을 이끌고 賊勢를 살펴보고 적의 소탕을 돕고자 합니다’ 하니, 그 말을 취할만하다고 하였다.…이에 內浦地域의 僧軍 수천명을 징발하여 그에게 지휘하도록 하고, 이름하기를 僧兵牌頭라고 하였다. 열흘동안 부대를 정비하였다.…방어사 이옥과 더불어 서로 응원하도록 하였다. 이옥은 이때 燕岐縣 東津에 주둔하여 있었다. 얼마 있다가 靈圭는 西門 밖 水庫峴으로 나아가 陣을 쳤는데, 모두 세 陣이었다. 정예병을 출진시켜 사면에서 왜군을 기다렸다가 邀擊하니, 적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이때가 임진년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였다. 29일에 방어사 및 인근의 官將·守令들로 하여금 영규와 더불어 (성을) 공략하여 적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모든 절제는 나(*尹國馨)에게 받도록 하였다. 하루종일 싸웠으나, 勝敗를 가르치는 못했다. 이에 李沃과 영규가 陣을 퇴각시켰다. 내가 공주목사로 하여금 급히 말을 달려 이옥의 陣으로 가서 가볍게 퇴각함을 질책하고, 다시 전투를 재촉하였다.¹²²⁾

122) 『문소만록』, “牧使許頊亦言 本州僧靈圭自募曰 萬億甚劣 亦得將軍之名 我亦從軍 率同志僧九人 探審賊勢 以助討賊 其言可取也…乃抄內浦僧軍數千 使領之 稱爲僧兵牌頭 旬日之間 整其部伍…與防禦使李沃 相爲聲援 沃時在燕岐東津結陣矣 未幾 圭進陣于西門外水庫峴 凡三陣也 時出精銳 邀掠四面 賊不敢恣行 時壬辰七月望念間也 念九防禦使及隣近官守令 與圭將功清賊 凡節制皆聽於我 終日接戰 勝敗未決 沃與圭罷陣 余使公牧馳往沃陣 責其輕罷 更卽督戰.” 한편,

즉, 충청도순찰사 윤국형은 방어사 이옥이 이끄는 관군이 서너 차례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公州牧使 許頊의 추천을 받아 靈圭를 ‘僧兵牌頭’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옥을 대신하여 승병을 지휘하여 관군과 더불어 청주성을 수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승장 영규가 지휘하는 僧·官軍은 7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몇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벌였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29일에는 일대 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투에서도 승패가 나지 않자, 영규도 전투의욕을 상실하여 군사를 철수시키려 하였다. 이에 당황한 윤국형은 허육을 급파하여 전투를 재촉하였으나, 이미 영규는 戰意를 상실한 뒤였다.

한편 8월 2일 청주성이 수복되기까지 승·관군이 지휘관을 바꿔가면서 왜군과 대치하고 있던 기간 중에는 앞서 박춘란과 박우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향토의병도 활약하였다. 특히 조현의 휘하로 종군하였던 박우현은 조현이 진군하기 나흘전인 7월 26일 경에 독자적으로 청주성을 공략하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그리고 조현은 다른아닌 박우현의 전사에 자극받아 청주로 진군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박우현이 지휘한 전투는 조현의 청주진군에 앞서 鄉土義兵으로서 前哨戰的 戰鬥을 수행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청주성 점령 이후 전개된 일련의 전투과정을 되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추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현이 지휘한 8월 2일의 청주성 수복은 결코 一朝一夕에 義·僧聯合軍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과정에는 僧·官軍을 비롯하여 鄉土義兵에 의한 전투가 때로는 대

이 자료에 대해서는 8월 1일 청주성수복전을 윤국형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자료의 신빙성을 의문시하는 논리가 없지 않은데, 이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 위 기록에 곧바로 이어지는 기사를 살펴보면, “乃於八月初一大戰 雖無斬級之功 而賊徒多中矢丸 其勢孤立 翌曉賊悉衆而逃遁 此後賊更不來犯 清境獲安 民得收穫 圭以此聲聞中外”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8월 1일에 大戰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규 등 관군이 얻은 성과는 “비록 적의 목을 베는 공은 없었으나, 적의 무리를 화살과 탄환으로 쏘아 맞힌 것은 많았다”라고 표현되는 미미한 것이었다. 즉, 이 내용은 순찰사 윤국형이 자신의 주관 아래 청주성에서 승첩을 거두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승장 영규가 조현에게 총지휘권을 넘기고 그 휘하에서 지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군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주선과정에서는 당시 급파되었던 공주목사 허육의 조정이 있었음을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國朝寶鑑』 권31, 宣祖朝 8 壬辰, “公州牧使許頊 得義僧靈圭 使率僧軍助憲 憲合軍直薄清州西門.” 그런데 어쨌든 영규는 청주성수복전 이후 일대 명성을 얻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가 조현이 지휘한 청주성 탈환의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는 義僧兵이면서도 관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사적이 일반에게 알려지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규모로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그만큼 청주성의 전략적 위치가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임진왜란 초기 청주성전투는 단순히 점거당한 하나의 邑城을 회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당시 戰鬪狀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후의 戰勢를 가늠할만한 전투로서 위상이 부여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²³⁾ 이를테면 당시 청주성 수복과 관련하여 아직 미점령지역이었던 淸州 以西를 포함한 湖右地域의 義 · 僧 · 官軍을 포함한 충청도의 관 · 민병이 총동원되는 듯한 형세를 보였던 까닭이라고 하겠다.

당시 왜군도 청주성이 갖는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충분히 인식하여 성밖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승장 영규도 氷庫峴에 주둔하여 7월 중순에 처음 펼친 전투에서는 왜군의 이러한 공세 때문에 埋伏과 邀擊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과 대치하였다.¹²⁴⁾ 8월 1일 조헌이 지휘한 왜군과의 첫 접전도 서문 밖에서 이루어졌다. 이렇듯 당시 왜군은 최소한 2000여 명이 넘는¹²⁵⁾ 의 · 승연합군에 대응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었다. 당시 청주성이 갖고 있던 전략적 위치를 다시 한 번 짐작해 볼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모든 전투상황에 대한 기록은 모두 西門과 관련된 기록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당시 청주성을 둘러싸고 義 · 僧 · 官軍에 의해 전개된 일련의 전투를 고려할 때 8월 1일 조헌이 주도한 청주성 수복전은 이러한 일련의 전투를 마침내 승리로 마무리한 의미를 갖는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주성의 점거 이후 民 · 官兵을 총동원하여 탈환전을 전개하였던 일련의 지휘관들은 한 달이 넘게 지속된 전투에서도 승전보를 올리지 못하고 전사하거나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를테면, 다시 전투를 속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지휘관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조헌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16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1710년(숙종 36) 형조참판 金鎭圭가 글을 지어 서문 밖에 세웠던「文烈公重峰趙先生紀

123) 1592년 8월 당시 왜군이 호남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던 상황에서 호서지역은 피아간에 ‘咽喉之地’, 즉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關門 · 要害處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군이 그 관문을 공략하기 위해 설정한 진출거점이 다름아닌 청주와 진천이었다는 사실에서 그 전략적 위상을 짐작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宣祖實錄』권30, 25년 9월 戊辰條, “忠淸一道 爲賊咽喉.” 한편, 이와 관련하여 宋時烈이 지은 조헌의 「행장」에서는 금산전투의 의의를 兩湖의 保全 및 倭軍 撤收의 본격적 계기로 이해한 대목이 주목된다. 즉, 조헌이 금산전투에 앞서 청주로 진군한 이유, 절대적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금산공격을 감행한 까닭이었지 않나 추론해 볼 만하다. 청주성전투는 금산전투의 전초전에 해당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4) 주) 116 중의, “時出精銳 邀掠四面 賊不敢恣行.”

125) 조헌의 1600여 명, 영규의 300여 명만을 예정했을 때의 규모이다.

蹟碑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왜군이 청주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세력이 강성했다. 방어사와 조방장의 군사는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義士 朴友賢이 전사하니, 선생(*조헌)이 이에 급히 (청주로) 나아갔다. 승장 영규의 군대와 연합하여 壬辰年 8월 1일에 攄城 서쪽에서 적과 대치하여, 진히 쏘아지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전투를 독려했다.¹²⁶⁾

즉 방어사의 관군도 향토의병진도 영규의 의승병도 모두 패전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기도 저하되어 있었던 듯, 조헌은 직접 앞장서서 전투를 독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루종일 전투를 치렀으나 뜻밖의 소나기로 일단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한 여인이 성밖으로 나와 왜군의 탈출을 전달해 줌에 따라 의·승연합군은 무혈입성의 방식으로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여러 차례 계속된 전투에서 대부분의 정예병력을 잃고 의·승연합군의 士氣에 눌린 왜군은 새벽녘에 어둠을 틈타 스스로 철수하였던¹²⁷⁾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6월 하순 왜군의 점령 이후 8월 2일 다시 수복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지속된 일련의 청주성전투에서 박춘무 의병진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일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花遷堂集』의 기록은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 천명의 의병을 모아서 淸州로 直向하였다.公(*박춘무)은 청주성의 南門을 공격하고, 조헌은 서문을 공격하여 청주를 수복하였다.¹²⁸⁾

이렇듯 매우 단편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성이 충분히 추론될 수 있음은 앞서 여러 논거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다. 즉 창외 당시 양호의병의 공동작전구상 및 이행사실이라든가, 청주성의 시설구조에 따른 攻防構想의 일반성, 점거 이후 전반적 전투과정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사실성을 논거할 수 있었다.

126) 『重峰集』부록 권4, 「淸州戰場碑銘」, “賊據淸州者盛 防禦助防諸軍皆潰 義士朴友賢戰死 先生乃趣之 合僧靈圭軍 以壬辰八月朔日 與賊於州城西 親冒矢石督戰.” 한편, 『重峰集』부록 권2, 「행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是時倭奴方據淸州 防禦使李沃及尹慶祺軍 相繼奔潰 僧將靈圭 獨與賊相持累日 先生聞之 急向淸州.”

127) 『重峰集』권8, 「起兵後疏」, “而想其精銳銷盡於是戰 故夜焚其屍 而拔餘黨宵遁.”

128) 주) 11 참조.

그런데 어쨌든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청주성의 주요 전투지역은 서문 밖이었고, 8월 1일 수복전은 조헌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청주성의 공략에 임하는 조헌의 작전구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제 이 문제에 착안해보면, 청주성전투에서 박춘무 의병진이 수행한 역할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8월 1일 청주성 수복전 당시 조헌의 작전지역은 승장 영규가 일련의 전투를 벌였던 서문 밖이었다. 당시 호우지역에서 청주로 진군할 때 그 대로는 빙고현을 넘어 청주성의 남서부와 직면하게 되므로,¹²⁹⁾ 서문 또는 남문 밖이 주요 전투지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였을 것이다. 특히 氷庫峴에서 社稷壇으로 이어지는 서문의 對峰, 즉 社稷山([도면 2]의 梨洞~沙丁洞 지역)은 청주성안의 적세를 관망하기에 유리한 高地이므로 일찍부터 방어사 이옥을 비롯하여 승장 영규도 이곳을 중심으로 주둔¹³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진군한 조헌의 의병진도 영규의 승병진과 합세하고 있었으므로¹³¹⁾ 역시 이곳에 주둔¹³²⁾하였을 것이다.¹³³⁾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박춘무의 의병진은 적어도 향토의병장의 한 사람이었던

129) 주) 40의 [도면 2]참조 ; 『重峰集』권8, 「기병후소」, “以今八月一日 進軍淸州西南隅.”

130) 당시 영규와 조헌은 모두 빙고현(또는 화청령)에 주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 122 및 주) 132 참조.

131) 참고로, 조헌은 당시 충청도순찰사 윤선각 및 방어사 이옥과도 일찍부터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다. 『重峰集』권8, 「淸州破賊後狀啓別紙」, “臣於忠淸巡察防禦 皆有素交.”

132) 청주성전투 당시 박춘무의 의병진은 조헌의 진군에 앞서 청주성 남문 밖의 ‘남들(현재 청주시 慕忠洞·秀谷洞 일대)’에 주둔한 것으로 전해온다. 그런데 조헌이 서문의 對峰, 즉 社稷山에 陣을 설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박춘무의 의병진도 역시 남문의 대봉, 즉 현재 西原大學校([도면 2]의 ‘梨洞~古堂’ 지역) 자리에 設陣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高地에서 적의 동태를 관망하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두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輿地圖書』淸州牧 山川條 華淸嶺에서는, “華淸嶺 在州南四里 國土峯來爲呂基右輔 萬曆壬辰 重峯趙憲 陣于此 擊倭大捷”라고 하여, 조헌이 邑城의 右輔인 화청령, 즉 빙고현에 주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重峰集』부록 권4, 「遺事」에서는, “遂退陣於對峰 以臨城中”이라고 하여 조헌이 청주성전투 당시 서문의 對峰으로 일단 철수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본래 陣을 쳤던 서문의 대봉, 즉 사직산으로 돌아가서 高地에서 성안의 동태를 관망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淸州誌』(1961, 趙健相 編), 제1편 舊淸州誌 제6장 山川篇에서 ‘華淸嶺’에 대해, “西쪽으로 四里, 宣祖 壬辰 8월에 趙重峰이 이 山에 陣을 치고 倭兵을 擊退하여 크게 이긴 자리이며, 往日是 社稷壇이 있었고 오늘은 忠魂塔이 서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133) 임진왜란 초기에 활약한 의병과 관군의 실질적 혼재성 및 엄격한 구분의 애매성에 대해서는, 趙浚來, 1989. 「壬亂期 湖南義兵과 義兵指導者의 性格」 『北岳史論』 창간호(國民大 國史學科) 참조.

박우현이 7월 26일경 전몰하기 이전에는 청주성으로 진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미 빙고현의 우측 사직산은 僧·官兵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남문 밖의 남들지역에 진을 치고 남문의 공략을 구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영규의 승·관병은 서문을, 박춘무의 의병진은 남문을 공략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여러 차례 접전이 있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분담은 조현이 진군한 이후에도 이미 두 사람이 각각 호서의병의 좌·우대장으로 추대되었으므로, 청주성전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청주성을 둘러싼 아군의 작전지역이 이미 이렇듯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으므로, 8월 1일 조현이 청주성 수복전을 지휘할 때에는 사실상 北門에 대한 역할부여만 구상하면 되었다. 실제로 조현은 북문지역의 작전은 방어사 이옥이 담당하도록 구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전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선생(*조현)은 방어사 이옥에게 북문 밖에 병력을 매복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적들이 달아날 수 있었다. 이에 軍中에서 이옥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³⁴⁾

즉 조현은 8월 1일 왜군과의 접전에서 일단의 勝氣를 잡게되자,¹³⁵⁾ 아직 전투지역에 들어있지 않았던 북문밖에 방어사 이옥으로 하여금 관군을 매복하여 왜군의 퇴각에 대비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조현은 이미 청주로 출발할 당시에 방어사 이옥에게도 여러 차례 진군을 종용하고 있었다는 점¹³⁶⁾에서, 북문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하나의 궁여지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시말해 본래는 西門을 비롯하여 南門·北門에서 民·官兵이 일제히 공격을 단행하여 청주성을 수복할 작전구상을 세웠으나 방어사 이옥이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북문에 대해서는 전투의 승기를 잡게되자 그 차선책으로 왜군의 탈출에 대비하여 매복이라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방어사 이옥은 이것마저도 거절함으로써 왜군의 잔여세력은 북문을 통해 진천방면으로 퇴각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현과 영규의 활약으로만 알려졌던 1592년 8월

134) 『重峰集』부록 권2, 「행장」, “方戰時 先生令李沃 設伏於北門外 沃不從 故使餘賊得脫 軍中莫不恨沃.”

135) 『重峰集』부록 권2, 「행장」, “士皆致死 賊大衄退走入保 我軍將登城.”

136) 『重峰集』부록 권2, 「행장」, “急向淸州 一面促李沃進軍.” 및 『重峰集』권8, 「청주과적후장계별지」, “故其擊淸賊之日 簡書相戒 不一而足.”

2일 청주성 수복은 사실상 6월 하순 왜군의 점령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義·僧·官軍의 활동이 하나로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영규가 지휘하는 승병은 물론 박우현·박춘란 등 여러 갈래의 향토의병진이 활약하였고, 방어사 이옥과 조방장 윤경기가 지휘하는 관군도 그 초기의 전투를 이끌었다. 즉 당시 청주성수복과 관련해서는 淸州 以西부터 湖右地域의 義·僧·官軍을 포함한 충청도의 관·민병이 총동원되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는 충청도 방어의 최고책임자인 순찰사 윤선각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으나, 끝내 관군 주도라는 입장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의병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청주성 전투과정에서 일찍이 동문수학한 歲寒의 故友로서 함께 호서의 병의 우·좌의대장으로 추대되었던 박춘무와 조현은 각각 청주성의 남문과 서문을 공략을 지휘하였다. 다만, 박춘무는 6월 하순 이후 지속된 일련의 전투과정에서 주요 작전지역이었던 서문공략의 지휘권이 방어사 이옥으로부터 승장 영규로, 그리고 다시 호서좌의 대장 조현으로 넘어감에 따라 남문의 공략을 담당하여 주로 牽制 및 應援(支援)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렇듯 박춘무는 청주성 수복이 있기까지 조현과 거의 대등한 위치와 역할을 분담하여 승리를 이끌어낸 또 한 명의 주요한 의병장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었기에 조현이 지휘한 의·승병이 8월 1일 전투를 수행한 지 하룻만에 청주성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鎭川勝捷 및 이후의 行蹟

앞서 살펴 본 淸州城 收復戰鬪와 마찬가지로 박춘무의 鎭川勝捷에 대해서도 그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진천으로 진군한 이후 박춘무의 의병진은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그 문집 『花遷堂集』 이외에는 관련사실을 기술해놓은 자료도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도 진천지역에서 발행된 古邑志 및 현행 市郡誌 등을 조사해보면, 임진왜란 당시 활동한 의병장으로는 金孝騫, 李時發, 林秀荃·林秀莫·林賢 兄弟父子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¹³⁷⁾

그런데 이러한 의병장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진왜란 초기 진천 지역에서 활약한 중심인물은 오히려 박춘무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시

137) 『朝鮮實輿勝覽』(1937, 李秉延 著), 「鎭川郡」, 功臣條·忠臣條 및 『鎭川郡誌』(1994, 진천군), 107~108 참조.

받은 박춘무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참가하였으므로, 그의 의병활동이란 사실상 박춘무 의병진의 활약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임수전·임현·임수명 부자형제는 박춘무의 의병진이 진천전투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수원방면으로 북상한 뒤, 의병진을 구성하고 북상하여 竹山 鳳城戰鬪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춘무의 의병진이야말로 임진왜란 초기 진천지역에서 가장 비중있게 활동한 의병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춘무 의병진의 진천승첩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단독으로 거둔 성과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비교·검토할만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진천승첩에 대한 해명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그 문집 『花遷堂集』에 의존하여 자료소개의 정도에 그쳐야 할 형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차자료로서 격문 1건¹³⁸⁾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사실성은 확보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박춘무의 진천승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만한 한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花遷堂集』의 해당 기록을 다시 한 번 열람하는 것으로서 그 대체적인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인용한 「거의시사」에서 해당부분의 기사를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를 나누어 진군하기를 조현은 錦山으로 나아갔으며, 공(*박춘무)은 鎭川으로 향했다. 왜적을 포위하고 열흘이 지나도 지원병이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포위를 풀려고 하였는데, 한 무리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식을 가지고 바빠 달려와 위로하며 말하기를, 불쌍한 우리 城民들이 지금까지 도륙당할 위기를 넘긴 것은 모두 장군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포위를 푼다면 왜적들은 틀림없이 제멋대로 살육을 일삼을 것인데, 어찌 차마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公 또한 울면서 그들을 달랬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포위망의 남쪽을 풀도록 하여, 왜적이 몰려나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公은 수천의 장사들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추격하여 그 後陣을 공략하였다. 그리하여 대침을 거두니 진천일대가 이로써 안정될 수 있었다.¹³⁹⁾

즉 호서 우·좌의병진의 1차 공략대상이었던 청주성 수복의 기쁨을 만끽하였을 박춘무 등 의·승연합군은 다시금 본래의 작전구상대로 각기 군사를 진천과 금산방면으로 진군시켰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은 청주성 수복 직후 조현 의병진에 앞서 진천지역으로 진군하여,¹⁴⁰⁾ 왜군과 열흘정도 대치하다가 한쪽의 포위를 풀어 적의 퇴로를 열어준 다음 이를

138) 『花遷堂集』권1, 「再檄文」.

139) 주) 11 참조.

140) 『花遷堂集』권2, 「행장」, “逆賊於淸州 與趙重峰先生 合戰敗之 又臨之於鎭川.” ; 『花遷堂集』권3 「추록 상언초」, “春茂先向鎭川.” ; 『花遷堂集』권2, 「시장」, “遂分師敵愾 趙公則立殲于錦山 朴

통해 퇴각하는 적의 후미를 공격하여 패퇴시키는 방식, 즉 退路誘導 및 後方攻擊의 退路誘導 및 後方攻擊의 作戰¹⁴¹⁾으로 다시금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어냈다. 이때 全面的 攻略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퇴로유도의 작전을 구사한 까닭은 절대적인 數的 열세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지원병을 요청하는 격문을 주변 군현에 발송하였으나, 순찰사 윤선각의 방해책동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花遷堂集』의 기록대로라면, 박춘무의 의병진은 청주성 수복에 이어 또 다시 진천승첩을 거두는 맹활약을 벌이고 있던 셈이다.

그런데 진천승첩과 관련된 이러한 기록도 부분적으로는 수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선 검토해 볼 사항은 비록 당시에 청주성전투의 패배로 왜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열흘 정도의 단기간에 박춘무의 의병진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진천전투에서 연이어 勝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청주성 전투의 지휘자였던 조현은 수복 이후 전열 재정비의 과정에서도 의병진은 여전히 순찰사 윤선각의 방해책동에 시달려 이렇다할 만한 재충전의 여건을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8월 2일 의·승연합군이 청주성에 입성하였을 때, 왜군은 급히 퇴각하는 바람에 성내의 창고에는 軍器와 糧穀을 그대로 남겨둔 채였다. 이에 따라 의병진은 군량을 보충하고 병력을 재충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조현이 병기와 양식을 의병 및 민간에 분배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것을 방어사 이옥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옥은 왜군이 재침하여 사용할지도 모르므로 소각하라고 했다는 순찰사의 명령을 핑계로 모두 불태우고 말았다. 따라서 의병진은 민간에 흩어져 각자 취식하고 병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¹⁴²⁾ 그렇다면 이와같은 사정은 박춘무의 의병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의병진은 청주성전투를 승리로 장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군사책임자인 순찰사의 방해책동으로 병기나 군량 등을 재충전할 기회를 잃어버림에 따라 승리의 기쁨으로 사기충만하기보다는 당장의 취식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박춘무 의병진이 병기와 군량을 재충전하여 진천전투를 수행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진천승첩의 시기는『거의시사』등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다. 그 문집에서 진천전투의 시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도 다른 자료로는, 이때

公則獻捷于鎭川.”

141) 『花遷堂集』 권3 잡저, 「거의시사」, “乃野虛其南 賊屏迹逃走 公以累千壯士 躍馬躡後 斬其後陣 遂獲大捷.”

142) 『重峰集』부록 권4, 「유사」, “憲入城 倉穀如故 防禦使李沃 來見曰 不可留此 爲賊再據也 悉燒之 憲軍無所資 內令諸軍 各散就食 具衣裝.”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격문¹⁴³⁾ 1건이 있다. 그런데 이「재격문」에서는 “趙憲 輕發而內死”라고 하여 이미 8월 18일 趙憲의 戰死¹⁴⁴⁾를 언급하고 있다던가, “奚賴天兵之來救 世無傳檄之敬業”이라고 하여 8월 중순에 있었던 明軍(*李如松軍)의 派兵 通報¹⁴⁵⁾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8월 말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헌의 의병진과 마찬가지로 박춘무의 의병진도 청주성전투의 과정에서 소모된 병력이라든가 군수품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당시 진천에 주둔해 있던 왜군의 규모를 “鎭川賊 倍於淸州”¹⁴⁶⁾라고 하여, 청주성전투 때의 규모를 훨씬 능가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이 기록은 나름대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진천은 이미 청주와 더불어 왜군이 설정한 중간거점의 하나였고, 청주성전투 이후 守勢에 놓인 왜군이 일차적으로 집결하여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즉 청주성전투 이후 주변의 왜군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각각 진천과 옥천으로 집결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본다면, 당시 진천에 주둔한 왜군의 규모는 청주의 2배에 달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위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춘무 의병진의 진천승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 전투는 의병진이 절대적인 數的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두어낸 승리, 특히 흔치 않은 連戰連勝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춘무의 의병진이 진천으로 진군하였을 때 왜군의 규모는 청주성전투 때의 2배에 달하였다. 반면에 의병진은 청주성전투를 치르는 동안 상당한 병력 손실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진군하기를 주저하였다.¹⁴⁷⁾ 이에 따라 박춘무는 평소의 인품¹⁴⁸⁾과 敵愾心으로 의병을 독려하는¹⁴⁹⁾ 한편, 주변의 군현에 격문을 띄워 지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순찰사의 방해책동으로 지원병을 보내는 군현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의병진은 왜군에 대해 절대적인 숫적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려고 하였다.

143) 『花遷堂集』 권1, 「再檄文」.

144) 『重峰集』 부록 권1, 「年譜」, “十八日效節於錦山.” 한편, 『練藜室記述』 권16, 壬辰義兵條에서는 조헌의 전사일자를 8월 27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瑣尾錄』·『亂中雜錄』의 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祭祀와 관련된 일인 이상, 年譜의 기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145) 조원래, 1992. 앞 논문, 108~114 참조.

146) 『花遷堂集』 권3, 「추록 상언초」.

147) 『花遷堂集』 권3, 「추록 상언초」, “鎭川賊 倍於淸州 義士孤弱畏怯逡巡.”

148) 주) 92 참조.

149) 『花遷堂集』 권3, 「추록 상언초」, “春茂奮然曰 京城失守 鑿輿播越 爲臣民者 但?效死討賊 豈萌圖生之念乎.”

특히 당시 지원병이 오지 않는 까닭이 순찰사의 지원금지명령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의병진의 전투의욕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때 의병진으로 하여금 전투의욕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역주민들의 애원과 격려 때문이었다. 규모상의 절대적 열세 때문에 공격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대치하고만 있던 의병진은 성의 포위를 풀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때 어디선가 일단의 남녀들이 달려와 의병마저 철수하면 지역민은 곧 모두 왜적에게 도륙당할 것이라고 애원하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와서 의병진을 격려했다. 이에 의병진은 다시 사기를 되찾아 그날 밤에 공격을 감행했다. 다만 이때 의병진이 절대적인 숫적 열세에 있었으므로 退路誘導 및 後方攻擊의 作戰을 통해 다시 한 번 전승을 거두었다.

한편 당시 의병진이 연이어 승첩할 수 있었던 데는 왜군의 사정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왜군은 숫적으로는 우세하였지만, 명군의 개입에 따른 불안과 청주성전투의 패배에 따른 사기위축으로 전의를 상실한 상태¹⁵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왜군은 성안에서 농성할 뿐,¹⁵¹⁾ 공격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박춘무 의병진의 진천승첩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였다. 특히 이와 관련된 일화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왜군의 약탈과 살육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일반적 고양과 의병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폭적 지원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즉 당시 진천지역 주민의 이러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박춘무 의병진이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주성전투에 연이은 진천승첩의 의미로서 무엇보다도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로써 박춘무는 호서우의대장으로 추대될 당시에 구상된 일련의 작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해간 유일한 의병장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본래의 작전구상에서 연합의병의 지도자로 설정되었던 박춘무·조현·고경명·김천일 중에서 고경명과 조현은 이미 전사하였고, 김천일은 7월 말이면 강화도로 옮겨감으로써¹⁵²⁾ 사실상 본래의 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사람은 박춘무뿐이었다. 그렇다면 박춘무의 의병진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150) 『花遷堂集』권3, 「추록 상언초」, “望之知爲淸州義兵 皆畏縮相戒勿犯”의 기사에서, 청주성전투의 패배에 따른 왜군의 충격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다.

151) 고읍지 및 고지도 등에 진천현은 읍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때 왜군이 주둔한 성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진천은 고대로부터 삼국의 각 축장이었던 관계로 都堂山城을 비롯하여 大母山城·櫟尾山城 등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왜군의 주둔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편 당시에 진천에서 피난지로 설정된 지역과 관련해서는 養千山城에 대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152) 조원래, 앞 책, 49.

불구하고 진천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있던 배경으로서 그 개인적 역량의 탁월성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후 박춘무가 ‘用兵에 뛰어나 敗戰한 적이 없는 義兵將¹⁵³⁾으로 명성을 얻게되는 까닭이었다고 여겨진다.

진천승첩 이후 박춘무의 의병진은 다시 본래의 작전구상대로 계속 북상하여 수원방면으로 진군한 것으로 판단된다. 水原은 다름아니라 湖西左·右義陣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박춘무의 의병진이 김천일의 의병진과 합동·공조하도록 설정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당시 박춘무의 의병진은 연전연승하고 있었고, 진천지역에서는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본래의 작전구상대로 진군하는 데에는 별반 異論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원으로 진출한 박춘무의 의병진이 김천일의 의병진과 합류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호지역을 연계한 연합의병의 구상을 처음 제시했던 김천일이 7월 말에 들어서는 강화도로 移陣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花遷堂集』에서는 진천전투 이후 박춘무의 의병진이 모두 의주 용만의 행재소로 근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진천전투 이후 왜군이 서울~의주의 간선도로인 西路를 가득 메우고 점차 행재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춘무의 의병진은 노심초사하여 밤낮으로 진군하여 행재소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물론 北上하는 길목마다 왜군이 가득가득 주둔하고 있었지만, 다름아닌 청주성 수복을 거둔 의병진임을 알고는 오히려 두려움에 대적하지 말 것을 서로 경계할 뿐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박춘무의 의병진은 전원이 무사히 행재소에 도착하였다고 한다.¹⁵⁴⁾

그러나 위 기록은 우선 내용부터 허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 배경 구성이라고 할만한 戰況에 대한 설명이 박춘무의 의병진이 북상과정에 있었을 8월 말 이후와는 전혀 다른 전쟁 발발 초기 2개월간의 상황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청주성 수복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군과 왜군의 사정은 역전되기 시작하여 왜군은 오히려 漢城 以南으로 下向駐屯하고 있었다. 설령 용만근왕론이 사실이라고 보고자 하더라도, ‘賊兵充滿西路’하고 ‘所經諸處賊屯彌萬’한 상황에서 아직 漢陽 이북에서 이렇다 할만한 승전하나 없던 敵陣을 뚫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것도 일개 의병진이 의주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휘하의 종사관 이시발이 이듬해 4월 江西의 行在所에 도착하여 곧바로 還都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던 사실이 후대의 전승과정에서

153) 주) 163 참조.

154) 『花遷堂集』권3, 「추록 상언초」, “聞賊兵充滿西路 漸迫行在 不勝憂慮 日夜馳赴 而所經諸處 賊屯彌萬 望之知爲淸州義兵 皆畏縮相戒勿犯 故全師得達於行在所.”

와전되어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위 기록이 전혀 사실성이 없다고 할 수만은 없겠다. 우선 청주성 수복 및 진천승첩을 통해 알려진 박춘무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해 볼 만하다. 특히, 이러한 기록이 정착될 수 있었던 어떤 근거와 관련하여, 아마도 진천승첩 이후 박춘무의 의병진이 淸州로 귀환을 택하지 않고 水原을 거쳐 漢城 부근에서 활동하였던 사실의 반영이 아닐까 추정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1592년 9월 이후의 전황을 살펴보면, 명군의 개입 이후 강화회담이 본격화되는 한편, 왜군이 장기농성전에 대비하여 주요 병력을 한성부근으로 집결시키거나 호남공략에 치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성 부근과 호남 진출의 교두보인 금산이 주요 작전지역으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전세 역전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다름 아닌 이듬해 2월 12일 全羅道巡察使 權慄이 지휘한 官·義聯合軍의 幸州大捷이었다. 그리고 이때 권율이 행주대첩을 거두기까지에는 관군은 물론 다양한 의병세력이 직접 참가하거나 후방에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¹⁵⁵⁾

이렇듯 진천승첩 이후 다시 본래의 구상대로 수원을 목표로 북상하고 있던 시기에 서울 부근이 하나의 주요 작전지역으로 부상함에 박춘무의 의병진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戰況은 이미 송제민의 교섭으로 양호 의병의 연합작전이 구상될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박춘무의 北上勤王의 活動도 이미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후사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軍糧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兩湖로 내려갈 것이다...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要害處를 막고 있는 장수가 있는가. 尹斗壽가 대답하기를, 宣居怡·許頊·朴春茂가 막고 있습니다.¹⁵⁶⁾

위 기록은 임진왜란 이듬해 3월 5일에 장차 軍糧의 조달을 위해 호서·호남지방으로 下向할 것으로 예상되는 왜군의 진격에 대비할 만한 장수가 있는가를 묻는 宣祖의 질문에 좌의정 尹斗壽가 요해처에서 宣居怡·許頊 등 당시 관군지휘관들과 더불어 朴春茂가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당시 박춘무는 충청도관찰사 許頊, 전라병사

155) 행주대첩에는 다양한 의병진이 참여하거나 원조하였는데, 이때 박춘무의 의병진도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56) 『宣祖實錄』권36, 26년 3월 庚申(5일), “上曰…但糧盡則 必下兩湖 以此爲慮…上曰 有把截要害者乎 斗壽曰 宣居怡 許頊 朴春茂 方爲把截.”

宣居怡와 함께 장차 軍糧調達을 위해 호서·호남으로 下向할 것으로 예상되는 왜군의 진격에 대처하고 있는 주요 장수의 한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선거이와 허욱은 이에 바로 앞서 2월 12일 전라관찰사 權慄이 지휘하는 三道 官·義兵의 행주대첩에 참가하기 위해 각각 露梁과 陽川에 주둔하고 있었는데,¹⁵⁷⁾ 2월말이 되면 각각 水原으로 물러나거나 本道로 귀환하였다.¹⁵⁸⁾ 이때 왜군도 후퇴하면서 다시 산발적으로 兩湖지방을 점령하기도 하였는데,¹⁵⁹⁾ 박춘무는 아마도 계속하여 서울 또는 수원부근에 주둔하며 활동했던 것 같다.¹⁶⁰⁾ 이와 관련하여 『花遷堂集』에서 “亂已 公大歸鄉廬”¹⁶¹⁾ 라든가, “收復兩京 則洗戈還鄉”¹⁶²⁾라고 하여 그가 귀향한 시기를 한양이 수복되고 선조가 환도하는 10월 이후로 기록해놓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가 선거이·허욱 등 당시 관군지휘관들과 더불어 활동이 파악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로 관군과 일정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였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박춘무는 宣祖의 還都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병진을 해산하고 귀향하였는데,¹⁶³⁾ 丁酉再亂이 발발함에 따라 다시금 軍功을 떨치게 된다. 즉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都體察使였던 金應南은 그 대비책으로 이전에 활동하였던 의병장들을 기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박춘무는 李逢·辛景行 등과 함께 “亦長於用兵 不曾敗衄”¹⁶⁴⁾ 즉, 用兵이 뛰어나 敗한 적이 없는 義兵將의 한 사람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박춘무 의병진의 명성이 어떤 하였던 것인가를 짐작하게 할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박춘무는 折衝將軍 兼 僉知中樞府事에 서용되어 중앙군인 五衛의 하나인 龍驤衛의 최고책임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⁶⁵⁾ 이때는 이미 관군이 재정비 된 이후이므로 당연히 정규군직을 띠고 활

157) 『宣祖實錄』권35, 26년 2월 壬寅條, “忠淸監司許頊…皆在陽川等地 全羅兵使宣居怡 在露梁.”

158) 『宣祖實錄』권35, 26년 2월 癸丑(28일), “幸州勝捷之後…全羅兵使 宣居怡退屯水原 忠淸巡察使 許頊…引兵還歸.”

159) 『宣祖實錄』권35, 26년 2월 辛亥(26일), “備邊司啓曰, 歸賊?入兩湖 以爲就糧之計 則國家又失兩湖.”

160) 이와 관련하여, 『韓國故事大典』(金舜東, 1965. 回想社)의 「宣祖壬辰殉義人士」(657~662)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殉節한 인물 외에 ‘起義僧將’·‘義妓’·‘義兵將’ 등을 당시의 職責이나 殉國地 등을 중심으로 한 구절씩 설명을 붙여 놓았는데, 박춘무에 대해서는 ‘居京’(662)이라고 기술해 놓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흥미롭다.

161) 『花遷堂集』권2, 「묘표」.

162) 『花遷堂集』권3, 「추록 상언초」.

163) 이것은 당시 의병진의 일반적 현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國王의 還都가 이루어짐에 따라 北上勤王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셈이고, 또 국가질서의 회복에 따라 이제 의병도 마땅히 관군으로 해체·재정비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164) 『宣祖實錄』권70, 28년 12월 丙寅(28일), “應南曰…朴春茂 亦長於用兵 不曾敗衄.”

동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박춘무는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을 통하여 뚜렷한 軍功과 주목할만한 인물로 부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상훈적인 관직 등용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학문적 명망뿐만 아니라 일찍이 醫術, 특히 鍼術이 상당한 경지에 있음이¹⁶⁶⁾ 알려짐에 따라 선조 및 왕세자를 직접 치료하며¹⁶⁷⁾ 內醫職도 겸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관료로서 현달의 가능성도 열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즉 林川郡守를 시작으로 잇달아 仁川·富平 등 서울 부근의 府使職에 제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료로서 그의 앞길은 결코 순조로울 수만은 없었던 듯하다. 오히려 험난을 예고하고 있었다. 정유재란 이후 그의 잇따른 승진적인 지방관 임용을 놓고 東人 및 北人 정국하에서 놓고 黨色的 牽制¹⁶⁸⁾가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그의 잇따른 지방관으로 중용을 놓고 史官들이 단지 의술에 힘입은 왕의 총애로만 기록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의 軍功과 관료로서의 능력을 폄하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史臣은 論한다. 朴春茂는 일개 鍼術로서 등용되었다. 전에 수령에 임용하였을 때도 이미 걸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 林川(*仁川)의 大邑을 제수받았으니 더욱 그러하다.¹⁶⁹⁾

이렇듯 관료로서도 현달이 열리는 문턱에서 史官의 비판을 이용한 당색적 견제가 시작됨에 따라, 본래부터 관직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¹⁷⁰⁾ 그로서는 커다란 미련없이 귀향하여

165) 주) 11 참조.

166) 토정 이지함 자신을 비롯하여 그 문인들은 대체적으로 의술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었던 듯하다. 해광 송제민의 경우에도 일찍이 1583년(선조 16) 35세의 나이로 향리에서 동지들과 醫局을 설치하고 약재 구입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魚鹽사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첨언 하자면, 그는 이때부터 후방지원적 역할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167)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辛巳(21일), “內醫院啓曰 林川郡守朴春茂 鍼術精詳 自前大殿東宮受鍼時 雖在外方 例爲招來 本郡則 距京遙遠 東宮亦行鍼灸 春茂勢難速還本郡 請命換授畿甸閑僻之邑 以除往來之弊 何如 傳曰 依啓陞授.” 즉 박춘무는 침술에 뛰어나 왕과 왕세자의 치료를 직접 담당하면서, 선조의 총애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조 28년 이후 『宣祖實錄』에서 박춘무의 의관으로서의 활동과 관계된 기사는 모두 5차례 기록되고 있다.

168) 박춘무가 교유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西人指向의 黨色の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169)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辛巳(21일), “史臣曰 朴春茂 以一鍼術見用 前爲守令 已有不稱之譏 今授林川大邑 尤不近似矣.” 한편, 여기에서 林川은 仁川의 誤記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宣祖實錄』 권87, 30년 4월 癸未(23일)에서 仁川府使로 제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남은 여생을 講學과 教育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의병활동 이후 처음으로 제수된 林川郡守 외에는 일체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듯하다. 그가 선조의 환도 이후 향리로 돌아와 두문불출하고 강학과 후진양성에만 힘 쏟았다는 후대의 기록은 이러한 사정이 다소 윤색되어 전승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V. 맺음말

이상의 고찰 내용을 그 의병활동의 특징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박춘무의 의병진은 창의기병 당시부터 하나의 원대한 작전구상 위에서 모병되고 활동하였다. 즉 임진왜란 초기 호서·호남의병의 首倡者인 조헌·김천일·고경명 등과 연계하여 이른바 掎角之勢로 표현된 하나의 상호연대적 공동작전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박춘무와 조헌은 각각 호서의병의 우·좌대장으로 추대되어 공동작전과정에서 실질적인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조헌은 고경명이 연계하여 錦山을 통해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군을 방어하고, 박춘무는 한성과 금산의 중간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던 淸州와 鎭川地域의 왜군을 격퇴하고 水原에서 김천일과 합류하여 한성 수복전에 대비한다는 방안이었다.

兩湖義兵陣이 이러한 작전구상에 따라 일단의 부대 편성을 이룬 것은 1592년 7월 4일 경이었다. 박춘무는 조헌은 같은 날 출정식을 치르고 추가모병 및 부대훈련을 실시한 다음, 첫 번째 공략대상인 청주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리하여 1592년 8월 1일 조헌과 영규는 청주성의 서문을 맡고, 박춘무는 정문인 남문을 공략하여 이튿날 청주성을 수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다만, 박춘무의 남문 공략은 6월 하순 이후 지속된 일련의 전투과정에서 주요 작전지역이었던 서문공략의 지휘권이 방어사 이옥으로부터 승장 영규로, 그리고 다시 호서좌의대장 조헌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로 牽制 및 應援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어서 본래의 구상대로 조헌은 금산으로 진출하였다가 8월 18일 전사하였으나, 박춘무는 8월말에 다시 진천전투에서도 승전보를 올렸다. 이렇듯 박춘무는 호서의 작전지역에서 일단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계속 북상하여 수원을 거쳐 한성부근에서 활동을 지속하였다.

둘째, 박춘무의 의병진은 당시 대부분의 의병진과는 달리 일찍이 鄉邑을 떠나 충청·

170) 주) 55 참조.

경기지역에서 北上勤王的 討賊活動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박춘무의 의병진이 기본적으로는 세거지였던 청주 서부지역에서 家率을 중심으로 거병하였지만, 양호의병의 공동작전 구상에 따라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그의 의병진은 청주성 수복 이후 진천·수원 등을 거쳐 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鄉里自保나 復讐討賊에 그쳤던 鄉邑中心의 群小 의병장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특히 그의 의병활동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단기간에 구성되고 外地에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連戰連勝하여 패배를 모르는 의병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청주성수복에 이어 진천전투에서도 절대적인 숫적 열세를 극복하고 연이어 승첩을 거두었으며, 이후의 전투에서도 勝戰을 지속하였던 듯 ‘용병에 뛰어나 패한 적인 없는 의병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찍이 조현이 그 인물됨을 ‘염靜自守’라든가 ‘深沈有智慮’라고 표현한 반면에, 박춘무는 고경명과 조현의 전사에 ‘輕發而乃死’라고 애석해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투에 앞서 對敵情報라든가 地形地物의 숙지 등 충분한 사전 정보에 바탕하여 작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일찍이 성리학 외에도 天文·易學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지함의 학풍이 일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셋째, 박춘무의 의병진이 창지기병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일찍이 조선초부터 ‘淸州~懷德’일대에 세거하였던 선대의 배경, 특히 부친 朴箕精의 학문적·지역적 명망이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토정 이지함의 문하라는 하나의 학연적 유대가 핵심적인 매개고리를 제공하였다. 즉 박춘무는 수학을 위해 거처를 옮기고 그 사실을 기념하여 自號할 정도로 이지함의 학문을 추종하여 그 문하의 대표적 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다름아니라 호서지역으로 내려와 소모활동을 전개한 송제민이나 함께 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현이 모두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특히 이들은 이미 청년시절부터 艱難을 함께 共濟하기로 한 ‘歲寒의 故友’였다. 송제민의 교섭과 주선으로 호서의병이 구성될 때, 박춘무와 조현이 두 수반으로 추대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박춘무의 의병진이 단기간에 대규모의 병력을 갖추고 향읍을 떠나 주로 外地에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의 軍功을 세울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일반 백성의 민족적 각성에 바탕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왜군의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그만큼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와 고통도 심화되면서, 일반 민중들은 支配階層의 收奪에 따른 反感과 身分的 對決意識을 뛰어넘어 同胞的 連帶意識을 발휘하여 民族的 抵抗의 隊列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임진왜란 발발 이후 3개월이 지난 7월에 들어서야 의병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까닭이었다. 여기에 박춘무의 의병진은 동생 박춘번, 아들 박동명 등 주로 家屬에 의해 지휘됨으로써 휘하의 군사들에게 지

도자적 모범에 바탕한 강한 순응적 결속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말로 향리를 떠나 외지에선 전개된 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의 성과를 거두어낸 두 건인 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렇듯 주목할만한 위상과 뚜렷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박춘무의 의병활동 사실은 충분히 기록되거나, 특히 지역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못했던 까닭에 대해 언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비록 단편적인 기록들이기는 하지만, 조현과 더불어 호서의병의 수반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정유재란을 맞아서는 ‘용병에 뛰어나 패한 적이 없는 의병장’으로 인식되어 중앙군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사적은 후대에 충분히 전승되지 못하고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 복원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의 의병활동은 대부분의 의병진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의 원대한 작전구상 아래 鄉邑를 떠나 전개되었던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는 北上勤王的 討賊活動을 구상하고 外地로 전진함에 따라 소규모의 향토의병장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기억될만한 여지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추론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그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한 이시발이 일찍이 이듬해 4월이면 다시 조정에 복구하여 활동하였던 것도 그 사적을 보존하는 데는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그의 자손, 즉 둘째아들 朴東命, 손자 朴弘遠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임진왜란에서부터 이괄의 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창의기병함으로써 ‘三世倡義之家’의 명성을 얻었지만,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박춘무의 의병활동 사적은 중앙 또는 전국적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저술을 통해서만 기억되었던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남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